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부 정책이야기

행복한 교육

자유학기제로 ‘학생 중심 수업’ 이끈다
교육부 세종시 시대 원년, 의미와 갈 길
2014 따뜻한 교육, 행복한 변화
조선시대에도 졸업식이 있었을까



Contents

2 February 2014 | Vol. 379



02

기획 I 교육부 세종시 시대 원년, 의미와 갈길

기획 II 자유학기제로 '학생 중심 수업' 이끈다

- 08 수업의 주인공은 '학생'
- 10 수업 변화의 출발점, 자유학기제
- 14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수업혁신① 울산 연암중학교
- 17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수업혁신② 경기 신길중학교
- 20 '꿈 동아리' LTI프로젝트 학습법… 진로는 '이렇게'
- 22 꿈과 끼 키우는 '행복수업'을 위해서는…

기획 III 2014 따뜻한 교육, 행복한 변화

- 48 2014 교육부 예산
- 49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 50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지원
- 51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 특성화
- 52 세계로 프로젝트+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화
- 53 행복기술사
- 54 학교체육 활성화
- 55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
- 56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
- 57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로 교수·학습 개선에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조치원여중(교장 박경희)에서 학생들이 저마다의 비전을 담은 자화상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26 삶과 교육 진기용 총남디자인예술고등학교 교사



26

30 꿈이 영그는 현장 대전혜광학교



30



34

34 이런 수업 어때요 무한상상실 '아이디어 실현' 수업

38 역사의 책갈피 조선시대에도 졸업식이 있었을까

40 세계 속의 한국교육 샌프란시스코한국교육원

44 서남수 장관의 행복한 교육이야기

46 정책카툰 블루존 캠페인

58 함께 여는 행복교육 국립국제교육원



40



74

62 학교 밖 학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박물관

64 학교·학급경영 노트 날마다 성장과 행복을 기록하는 '학급일기'

68 직업, 직업인 차재경 환경영향평가원

70 진로나침반 집단상담으로 풀어가는 진로지도

73 사람향기 아이들의 '행복샘'이 되어주는 박희대 선생님

74 일상의 쉼표 기다림이 일상이 되는 곳, 아바이 마을

78 만화로 보는 교육부 정부 3.0 정부 내 칸막이 해소

80 책 속의 블로그

84 뉴스브리핑

88 독자개시판

● **발행일** 2014년 2월 1일 ● **발행처** 교육부

● **발행인** 서남수 ● **편집인** 김문희 ● **기획총괄** 이강복 · 곽은우

● **교육부 대변인실**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431호 TEL (044)203-6580

● **행복한 교육 편집실** TEL (02)2271-0992, 0994(제보, 배송)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지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투고를 기다립니다(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 세종시 시대 원년, 의미와 갈 길

글 | 김권욱 순천대학교 교수(교육부정책자문위원회 미래교육전략분과 위원)

지난해 연말 교육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보훈처와 10개 소속기관 공무원이 세종시로 이전했다. 바야흐로 2014년은 교육부 세종시 원년의 해로, 향후 세종시에서 펼치게 될 교육 대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고 깊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지 568년 되는 해에 대한민국 인재육성의 요람인 교육부가 세종대왕의 얼을 닮고자 만든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 것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그 뜻을 펼칠 수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훈민정음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이어받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세계는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하나의 지구촌으로 급변해 가고 있으며, 국가마다 미래 생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식 기반사회, 정보화사회, 세계화사회, 다원화사회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21세기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과거 성장 동력은 '모방형 인적 자본'에 있었으나, 미래의 성장 동력은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 내는 '창조적 인적 자본'에 있다.

교육이 배움을 통해 '세상의 지혜'라는 '밝음'을 만들어 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세상을 밝게 해주는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한다. 하나는 생명의 지구를 만들어 주는 자연의 태양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말과 글로 현대 문명을 만드는 학문의 태양이다. 현재 우리에게 자연의 태양과 학문의 태양 중 어느 것이 더 위력적일까? 과연 둘 사이에는 조화로운 균형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걸까? 이 물음은 우리 교육의 근간 문제이다.

우리 교육의 미래, 나아가야 할 방향은?

교육부 세종시의 원년에 우리 교육의 뿌리는 무엇이며 현재 어떤 색깔, 어떤 모습이며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향해야 하는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교육의 뿌리는 근대국가, 근대산업, 근대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그 근대정신 속에 무엇이 있기에 이런 엄청난



학교 교육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한다.

교육부 세종시 원년은 온건한 삶과 괴리를 빚어온 지식 위주의 교육을

지성 위주의 교육으로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할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과학문명의 발전을 가져왔을까?

근대는 우리에게 내재된 이성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세상의 물질적인 것 이든, 감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모든 자연현상들을 수량화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수량화는 모든 존재의 가치를 하나의 가치로 환원하는 작업에 다름 아니다. 그 작업은 논리적인 알고리즘을 통해 똑같은 제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자본과 시장이 중심이 되는 근대 자본주의를 탄생하게 하였다.

그리고 국가는 현재와 같은 학교 제도를 통해 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는 이분법적 요소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괴리되는 지식을 가르쳐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과학은 전일적인 자연의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과편적인 현상의 조각에서 색깔과 냄새를 빼 개념과 지식을 만들어 자연의 현상을 설명하여 왔다. 그래서 지식의 체계 속에는 생명, 인성, 감성의 요소가 빠져 버렸다. 근대 사회가 추구해온 지식의 축적과 전수라는 학교 제도는 수많은 사람들을 획일화, 표준화, 규격화 모듈 속에 밀어 넣었다고 볼 수 있다.

‘지식→지성’ 교육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기회로

이런 상황에서, 첫째로 학교가 인간의 존엄성, 다양성 그리고 창의성을 살려내는 곳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근대의 가치가 수렴해 간 자본주의 체계 속의 학교는 오히려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학교 교육이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가속적인 무한 경쟁으로 사회를 양극화로 내몰고 수많은 사람들을 좌절과 포기, 상실 속으로 유도하고 있지 않는가? 학교 교육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한다. 교육부 세종시 원년은 온건한 삶과 괴리를 빚어온 지식 위주의 교육을 지성 위주의 교육으로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할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현재 우리 교육은 어떤 색깔,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 우리는 서유럽이 3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근대화를 6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농경사회, 봉건사회, 근대 산업사회를 관통하면서 ICT지식 정보기반사회의 첨단국가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세종대왕처럼 정말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빠른 근대화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 꽈리를 틀고 숨어 있다. 최고 속도의 고령화, 저출산, 자살률, 이혼률이 그것들이다. 이제 우리는 근대화를 통해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어 버렸는가를 냉정하게 성찰해야 한다. 어찌면 우리는 얻은 것보다 잃어버린 것이 많을 수도 있다. 교육부는 발전의 미명아래 자본주의가 안겨 준 양극화의 아픔을 극복하고 국가차원에서 공생과 상생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 낼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세종시 원년, 미래교육에 대한 철저한 로드맵 만들자

셋째로, 우리 교육은 미래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미래사회에서는 다양한 학문과 기술들이 융합되어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교육받는 학생들이 미래에 마주치게 될 다양한 기회와 도전에 대해 대비시키는 것이 교육의 트렌드가 될 것이다.

아마도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해 보면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로는 교육, 경제, 에너지, 환경, 평등을 최우선으로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어느 하나도 빠트릴 수 없는 요소임에 분명하다. 일례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지식 공유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중세 봉건사회 붕괴는 물론이고, 종교혁명, 시민혁명, 산업혁명을 유도하여 현대 과학 문명의 토대인 근대 산업 사회를 만들었듯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인터넷의 보급은 근대 산업 사회의 변화보다 더 큰 혁폭탄 같은 혁명을 초래 할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혁명이 우리 미래사회를 어떻게 물고 갈지 예측해야 한다. 이 예측이 빗나가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퇴로가 막힌 공황에 빠질 수도 있다. 세

01. 교육부세종청사 전경





세종시 시대 원년인 2014년에 교육부는 제2의 훈민정음을 창제한다는 각오로 무한경쟁 속에서 꿈과 끼를 잃고 살아가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꿈을 꾸고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중심으로 기대해 본다.

종시 원년에 교육부는 현재 초등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게 되는 15년 후에 세상은 어떻게 변해 있고, 그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 어떤 자질이 요구되며, 또한 그러한 능력과 자질은 어떤 교육을 통해 양성되는지 답변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즉 교육부는 이 시점에서 미래교육에 대한 철저한 로드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꿈을 잃은 학생들에게 재도약의 발판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근대정신이 추구해 온 가치의 허와 실을 철저히 분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효율성 중대를 위한 획일화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될 것이다. 학교는 표준화를 위한 규격 속에서 인간이 가지는 무한한 창의성과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소중함, 존재에 대한 감사, 조직의 공동체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열린 교육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3.5개월마다 기존지식이 2배로 증가하는 빅 데이터의 시대가 가져올 미래 사회의 예측과 변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으로 21세기 미래사회는 어떤 인재양성을 필요로 하는가를 직시해서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핵심역량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또한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본 정책이 바뀌면 안 된다. 교육정책이 새 정부의 정책에 맞출 것이 아니라, 새 정부의 정책이 교육부의 일관된 교육정책에 맞추어서 교육의 백년대계를 수립해야 한다.

교육의 사명은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고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을 추구하며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우리의 전통과 가치를 후대에 계승 전달하는 데에 있다. 세종시 시대 원년인 2014년에 교육부는 제2의 훈민정음을 창제한다는 각오로 무한경쟁 속에서 꿈과 끼를 잃고 살아가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꿈을 꾸고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중심으로 기대해 본다. ☞



자유학기제로
‘학생 중심 수업’
이끈다



교사가 각각의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관점에서 교실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 학생 중심으로 수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학생 중심 수업을 성취하기 위한 교수·학습 개선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유학기제가 교실 변화에 큰 전환점이 되고 있어 주목된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 운영을 통해 진로탐색 등을 하는 과정이다. 새 학년 새 학기를 준비하는 2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교수·학습 혁신의 방향을 살펴본다.

- 수업의 주인공은 ‘학생’
- 수업 변화의 출발점, 자유학기제
-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수업혁신① 울산 연암중학교
-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수업혁신② 경기 신길중학교
- ‘꿈 동아리’ LTI프로젝트 학습법… 진로는 ‘이렇게’
- 꿈과 끼 키우는 ‘행복수업’을 위해서는…





수업의 주인공은 '학생'

글 | 박성익 서울대 명예교수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은 지식 위주의 암기식 교육과 입시 위주의 교육에 길들여져 왔다. 이러한 교육풍토에서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높은 시험성적 획득에 얹매이면서 자신의 미래 꿈을 그려볼 생각조차 못 하고, 자신의 재능이나 적성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한 채 학교 수업에 맹목적으로 참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도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려는 생각보다는 상급학교 진학에만 지대한 관심을 쏟아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 중학생의 학업성취도는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이지만 학습 흥미나 학습만족도는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학생 개개인이 학습의 주체로 거듭나야

발달심리학자인 매슬로우(Maslow)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서 최대한 키워가려는 욕구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이나 적성을 찾아내고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정과 학습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수·학습 환경 하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볼 수 있는 학습 기회와 여유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학교교육에서 성취감, 만족감, 자신감, 행복감을 경험하지 못하고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살려주려면 지금까지 지속해온 정답형 인간교육, 입시에 예속된 획일적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시스템을 탈피하여, 학생 개개인이 학습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수업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또한, 교수·학습활동의 궁극적인 귀결점이 학습자의 행동변화라고 볼 때 수업의 중심이 학생이 되어야 하며, 학습자에게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 이를테면 “너는 이러한 진로를 향해서 공부해라, 너는 이러한 재능이 있다.”와 같이 교사나 부모가 미리 설정해 놓은 길로 가도록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미래 진로는 네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라.”라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 즉,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고 이를 키워나가려면 틀에 박



01

01. 교수·학습활동의 궁극적인 귀결점이 학습자의 행동변화라고 볼 때 수업의 중심은 학생이 되어야 한다.

자유학기제에서 수업의 주인공이 학생이라는 교육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의 교육적 의미는 매우 크다. 자유학기제는 학교교육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는 ‘행복학교’를 만드는데 견인차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한 훈련식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학습 환경 하에서 마음대로 체험하고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교수·학습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유학기제, ‘행복수업’ 이끄는 견인차로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찾고 이를 길러주려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학생 개인의 능력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꿈과 끼, 창의·인성은 개인 간 차별성이 매우 크고 다양하므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수업방법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생 자신의 꿈과 끼를 스스로 찾도록 하려면 적어도 다양한 꿈의 종류와 끼의 유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또한, 교사들에게도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발견하고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역량을 계발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아울러, 교사들에게 학습 내용을 재구성하여 수업을 전개할 수 있는 전문성을 신장시켜 주고, 수업운영의 자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즉, 교과별 학습 내용 감축, 독서교육 강화, 교과지식과 연계된 창의적 체험활동, 블록타임제 등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근혜 정부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과 창의·인성교육을 실현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를 통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자유학기제’의 시행은 시의적절한 교육정책이다. 자유학기제에서 수업의 주인공이 학생이라는 교육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의 교육적 의미는 매우 크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재능·적성·창의성을 계발하고, 인성·사회성을 함양시켜 주고 자신감을 길러줌으로써 행복교육을 실현하고, 학교교육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는 ‘행복학교’를 만드는데 견인차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새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우리나라 학교교육 시스템의 획기적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게 될 미래지향적 행복교육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❷



수업 변화의 출발점, 자유학기제

글 | 황은희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특임센터 연구위원

자유학기제의 도입과 함께 학교는 혁신적이라 할 수 있는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도입 대상인 중학교 현장에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 교육평가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교육과정의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교과수업뿐만 아니라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별로 유연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였다. 교수·학습 방법의 측면에서는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토론, 실습, 체험, 프로젝트 수업 등의 다양한 수업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과정 및 수업이 가능하도록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중간·기말 고사와 같은 총괄평가

를 실시하지 않고, 자유학기제 기간의 학업 성취도는 내신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방법의 형성평가를 통해 교수·학습 과정을 진단하고 학생들의 학습목표 도달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 교육의 변화 중에서도, 특히 수업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수업 개선의 방향은 무엇이며, 이것이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또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능동적 학습자'로의 전환

자유학기제 수업의 특징은 학생 측면에서는 '흥미와 몰입', 교사 측면에서는 '자율성과 전문성'이라는 키워드로 대표될 수 있다. 그 동안 대부분의 교육정책은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향과 세부적인 지침까지 제공하는 관주도적인 성격으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자유학기제는 교육부에서 전체적인 큰 틀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01

자유학기제의 도입과 함께 학교는 혁신적이라 할 수 있는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도입 대상인 중학교 현장에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 교육평가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01. 02.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토론·실습·체험·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이 활용된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성,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교육과정 및 수업을 설계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을 보는 관점도 주어진 교육과정에 따라 주어진 지식을 무조건 흡수하는 ‘수동적인 학습자’에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수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인 학습자’로의 전환을 일으키고 있다.

자유학기제를 통한 수업의 혁신은 교육 내용의 구성과 교육 방법의 변화 두 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에는 기존의 교과 시간을 일부 감축하여 자율과정 시간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게 된다. 그에 따라 자유학기제가 아닌 학기보다 학교별로 일부 교과의 시수가 감축된다. 줄어든 수업시간에 교과서에 담겨있는 학습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 내용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때문에, 자유학기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교사의 교과 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된다.

실험·실습·토론 등 수업 방법 개선… 다양한 협력활동 강조

또한, 교사에 의해 선정되고 재구성된 교육 내용을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수업 방법의 개선 역시 수업 혁신의 핵심이다. 교육부에서는 보도자료(2013. 5. 28)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국어, 영어, 수학 교과는 문제해결, 의사소통, 토론 등을 활성화하고, 사회, 과학, 기술·가정 등의 교과는 실험, 실습, 현장체험, 프로젝트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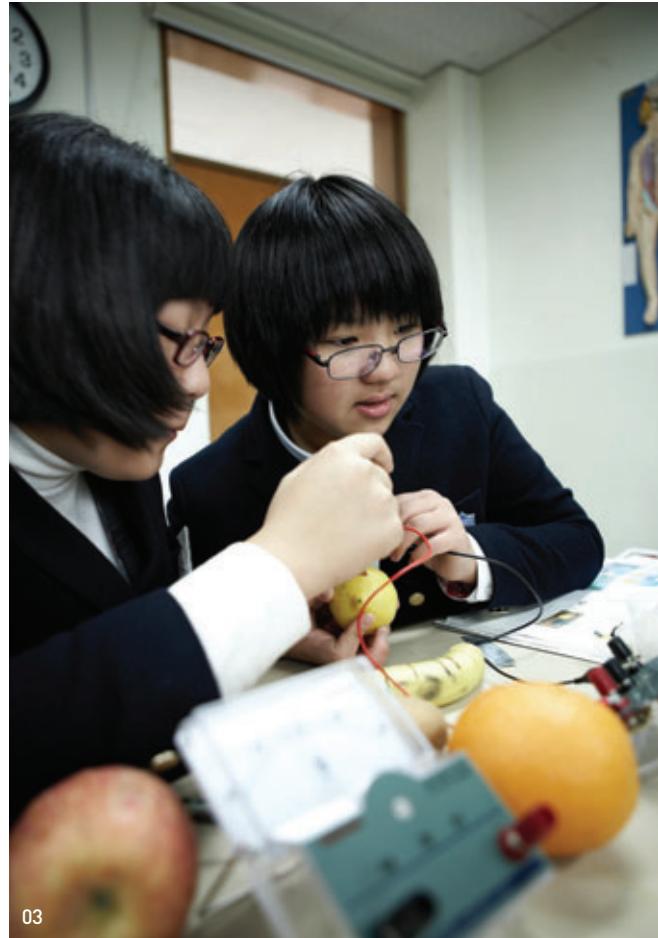
등을 강화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 간의 역할 분담 및 의사교환 등을 통해 학습하는 코러닝”을 활용하는 협력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학기제를 통한 수업 개선은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 역량을 키워주는 역할을 학교교육이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OECD(2005)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사회적으로 다양한 집단 내 상호작용을 위한 역량, 자율적인 행동을 위한 역량, 상호작용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 활용을 위한 역량으로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자유학기제는 교수·학습에 있어 학생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상호작용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협력적인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학기제의 교수·학습 방법은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21세기 핵심역량 교육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수업혁신 방향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혁신적인 수업은 2013년 시행된 자유학기제 42개 연구학교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연구학교의 운영계획서를 분석하고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한 학기를 지켜본 결과 연구학교의 수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찾을 수 있었다(최상덕 외, 2013).

첫째,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서는 교과 지식의 암기를 강조하는 주입식 수업 방법에서 학생이 수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즉, 교과서의 모든 부분을 정해진 시수에 따라 가르치는 ‘컨베이어 벨트’식 수업에서 벗어나, 핵심 성취 기준을 설정하여 교과의 내용을 취사선택하고 양을 재조정하는 ‘융합형·통합형’ 수업으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내용 면에서는 교과 간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으며, 핵심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재구성하고 있다. 또한 방법 면에서는 프로젝트 수업, 토론·토의식 수업 등 학생의 참여와 활동중심의 수업을 통해 학생을 능동적인 학습자로 변화시키고 있다.



03

03. 사회, 과학, 기술·가정 등의 교과는 실험, 실습, 현장체험, 프로젝트 수업 등으로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사가 수업 개선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의 조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하고 질 높은 연수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사회적으로는 학생들의 체험 중심 수업이 가능한 체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이러한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사 간의 코티칭(Co-teaching)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수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블록타임(Block time)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의 교과 담당 교사 혼자서 진행하던 수업을 여러 교과의 교사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교실 수업의 개방이 활발해지고 교사 간의 협력적인 문화가 형성되고 있었다.

셋째, 수업의 변화를 위하여 교사들은 다양한 수업 관련 연수를 이수하고 있었으며, 학교 안팎의 교과 협의회와 교사 연구회 등의 활동을 통해 자발적인 전문성 신장 노력을 하고 있었다.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키워야

그동안 다양한 교육 정책을 통한 수업방법의 개선과 공교육의 정상화 노력이 지속되어 왔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교육 정책을 학교 현장에 실현하는 주체인 교사가 소외되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자유학기제는 학생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교사의 수업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교사 또한 자유로운 수업의 운영을 위해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신장에 대한 노력과 의지를 지속시켜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사가 수업 개선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의 조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하고 질 높은 연수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사회적으로는 학생들의 체험 중심 수업이 가능한 체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교사가 아무리 좋은 수업 모형과 수업 내용을 개발한다고 해도, 그것을 실현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전 국민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이 실현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지원과 자유학기제를 통한 수업의 변화를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 미래 사회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로의 변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❷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수업혁신① 울산 연암중학교

학생들이 만들어 가는 '협동학습'

글 | 조은희 울산 연암중학교 국어교사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교사로서 꿈으로만 꾸었던 다양한 수업 방법을 활용할 수 있었고, 수업 속에서 달라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교사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참 부끄러운 교사다. 내가 학생들을 바꾼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학생들이 학생들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내 수업의 작은 비밀을 밝히려 한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끌어낼 수 있는 학생 활동 중심 수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의 변화가 필요했다. 먼저, 교과 협의를 통해 교과목 수 축소 (교과별 시수 확보), 블록타임제 실시 등 교육과정 운영 방법을 조정하였다. 다음으로 교과별 협의회를 통해 단원별 진로교육 요소 추출, 학생 활동 중심 수업 모형 및 평가 모형 개발, 2학기 전 차시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학생들의 성격, 특성, 성적, 교우관계 등을 고려한 모둠 편성 등 2학기 수업을 위한 교수 환경 여건을 조성하였다.



4~6명 모둠으로 협동학습 지도

나는 협동학습을 주된 학습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협동학습이란 구성원이 4~6명인 소집단을 형성하여 구성원 사이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며 학습하는 교수학습방법이다. 모둠구성은 4인 1조의 이질적인 모둠으로 각자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여 지킴이, 이끌이, 칭찬이, 기록이로 역할을 나누어 활동한다. 각 모둠원이 각자의 역할을 완수해야만 과제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인성요소 중 협동·책임·배려·존중 등의 태도를 기를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능력과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 협동을 배우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첫 번째 방법은 '칭찬'이다. 이때 칭찬은 교사가 해 주는 칭찬이 아니라 학생들이 서로에게 해 주는 칭찬이다. 청소년기 학생들은 또래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이 점을 활용하여 칭찬이를 각 모둠에 1명씩 둔다. 한 반에 8~9개의 모둠이 있으므로 8~9명의 칭찬이가 있는 셈이다. 이 학생들이 각 모둠의 활동 중 친구들을 칭찬하면 모둠 점수를 준다. 칭찬을 여러 번 자주 하면 개인 인성 점수도 준다. 교사가 칭찬한 학생을 다른 학생이 칭

협동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수업 기술

- ✓ '칭찬'하라.
- ✓ 마침 신호를 사용하라.
- ✓ 모둠 향상도를 반영하라.
- ✓ 또래교수를 활용하라.
- ✓ 수업 방법을 결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라.
- ✓ 수업일기를 써라.



01. 협동학습

찬하면 그 학생도 인성 점수를 준다. 수업 분위기는 어느새 칭찬이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친구들을 칭찬하고 손뼉 치는 즐거운 분위기가 된다. 칭찬받는 것이 즐거워 발표도 대답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늘어난다. 이 활동을 여러 번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칭찬하는 태도가 습관화된다. 칭찬을 받은 학생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 수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칭찬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마침 신호이다. 하루 8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힘들다. 수업시간에 소리를 지르고 몸을 움직일 기회는 학생을 살아 있게 하고 즐거운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그래서 모둠 활동이 끝나면 마침 신호를 보내게 한다. 네 명의 모둠원들이 서로의 손뼉을 부딪치며 “짠짜짜짜”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한다. 신호를 빨리 보내는 모둠에는 모둠 점수를 준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하고 어색해하지만 다른 모둠보다 빨리 신호를 보내기 위해 과제 수행도 더 열심히 하고, 같은 모둠원 친구들도 많이 도와주게 된다. 박수 소리와 함께 “짠짜짜짜”라는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지면 수업 분위기가 훨씬 활기차다. 이 활동도 습관화되면 수업뿐 아니라 다른 활동을 할 때에도 마침 신호를 보낸다. 가끔 출입생들이 찾아와 나를 만나면 “짠짜짜짜”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한다. 그만큼 학생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는 수업 방법이다.

수업을 만드는 주인공은 '학생'

세 번째 방법은 모둠 향상도 반영이다. 학생활동 중심 수업은 모둠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수업의 문제점은 무임승차나 봉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기초지식의 수준이 낮고, 학습능력 면에서 개인 차이가 심한 편이라 이러한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둠 활동 중에도 모둠원 중 학습능력 또는 발표력이 부족한 학생을 다른 모둠원들이 도와서 발표를 하게 하면 모둠 점수를 두 배로 주는 것이다. 이 활동은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에게 좀 더 효과적이었는데 가르치는 학생은 친구를 가르치면서 학습을 반복하여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고, 가르침을 받는 학생은 발표를 통해 학습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모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네 번째 방법은 또래교수이다. 모둠 활동 중 제일 먼저 과제를 수행한 두 모둠에 다른 모둠을 도와줄 기



내 수업의 비밀은 모두 학생들에게서 나왔다. 학생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이다.

세상에 가장 좋은 수업 방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

02. 국어-미술 융합수업

03. 모의 국제회의

04. 연극수업



회를 주고 도와준 모둠 수만큼 모둠 점수를 주는 것이다. 개인 활동 중에도 과제를 일찍 끝낸 학생 5~10명에게 다른 학생을 도와줄 기회를 주고 도와준 학생 수만큼 개인 노력 점수를 준다. 이때 정답을 알려주면 안 되고 정답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수업 방법을 결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수업 방법은 학습자인 학생들이 잘 안다. 실제로 지금 내가 하는 수업 방법의 대부분은 학생들이 제시한 것이 많다. 지난 12월에 했던 국어-과학 융합수업의 경우도 주제 선정부터 학습 방법까지 모두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학생들끼리 토의해서 만든 수업이다. 자신이 설계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의 눈빛은 가장 찬란하게 빛난다.

수업 후 '수업일기' 작성

이처럼 내 수업의 비밀은 모두 학생들에게서 나왔다. 학생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수업 비밀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나는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에게 수업일기를 쓰게 한다. 수업일기는 학생들이 번호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매시간 수업의 중심내용이나 수업 방식의 장·단점, 수업 및 교사에 대한 평가, 수업에 대하여 느낀 점 등을 솔직하게 작성하고 학생의 평가 결과를 다음 시간에 즉각 반영하는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일기가 있다.

“어떤 수업 방법보다 선생님의 웃음이 가장 좋은 수업 기술입니다.”

교사가 웃어야 학생도 즐겁다. 세상에 가장 좋은 수업 방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교사의 웃음이다. ☺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수업혁신② 경기 신길중학교

선택프로그램 개설로 수업 '창의성' 발휘

글 | 김연주 경기 신길중학교 체육교사

난 커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지금부터 어떤 꿈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필자가 학창시절 가장 많이 고민했던 걱정거리였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나의 학창시절과 별반 다르지는 않을 거로 생각한다. 학생상담을 해보면 가정·친구·외모에 대해 고민도 많이 하지만 자신의 미래와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학생들도 꽤 많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본질인 '꿈을 찾고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아이들이 바라고 있는 학교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경기 신길중은 이러한 꿈을 찾고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의 실현된 모습인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하게 되었다. 자유학기제 취지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하고 있으나, 직접 수업을 이끌어 가야 하는 교사로서 수업구상이 쉽게 뚝딱 나오는 것은 아니었다. 오후 선택프로그램 한 가지를 개설하고 희망 학생들로 반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역량을 발휘하고 나의 전공(체육)을 살려서 한 학기 동안 내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이 의미를 가지고 꿈꾸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다.

'스포츠문화체험' 선택 수업 개설... 직접 발로 뛰며 '수업주제' 구상

기존 교육과정 틀을 벗어나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수업!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도, 수업을 함께 만들어 가는 학생도 행복한 수업! 정말 자유학기제다운 자유로운 수업을 구성해보고자 '스포츠문화체험'이라는 수업을 개설하게 되었다. 수업의 목표는 다양한 스포츠문화를 체험하면서 꿈과 끼를 찾는 행복교육을 추구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문화 경험을 체득하는데 두었다. 또한 스포츠와 더불어 여가문화, 환경문화, 지역사회문화, 다문화를 융합하여 교육적 의미를 찾고, 체육계통 진로를 탐색하며, 학생과 학생이 또한 교사와 학생이 소통하는 수업을 구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자유학기제 선택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동아리활동 개념과 다른 점을 꼽자면 취미와 여가활동의 개념에서 한 단계 나이가 교육적 요소와 진로 요소를 추출하여 접목하는데 있다고 본다.

새로운 선택프로그램 수업을 구성하다 보니 교사와 학생 모두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수업에 그대로 녹아들었다.

첫째로 가장 큰 변화는 발로 뛰는 교사가 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책상에 앉아서 교사용 지도서와 인



직접 수업을 이끌어 가야 하는 교사로서 선택수업 구상이 쉽게 뚝딱 나오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선택프로그램 한 가지를 개설하고 희망 학생들로 반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학생들이 의미를 가지고 꿈꾸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다.

터넷 정보를 활용하여 수업연구를 하거나 각종 교사연수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을 수업에 접목해서 수업을 했었다. 하지만 적극적 참여를 통해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 교사인 나도 배워보고 싶은 수업,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만한 가치 있는 수업주제를 찾기 위해 발로 뛰기 시작했다. 3년 전 신규발령을 받아 처음으로 오게 된 잘 모르는 안산 지역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인·인터넷 정보를 알아보고 전화해보고, 그것도 부족하면 직접 가서 부딪혀보았다. 발로 뛰었을 때의 가장 좋은 효과는 안 되는 것도 직접 부딪히면 되기도 하였고, 직접 수업할 공간에 가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의미 있고 즐거운 수업이 되겠느냐는 수업구상을 저절로 하게 된다는 점이었다.

'틀' 없는 수업으로 창의력 발휘 필수

그렇게 발로 뛰어 구상한 스포츠문화체험 수업 내용은 첫 시간에 '친구&스포츠와 친해지기' 수업을 시작으로 스포츠클라이밍, 인라인스케이트, 볼링, 등산, 오리엔티어링, 단축마라톤대회, 자전거라이딩, 양궁(코오롱양궁팀 교육기부), 체육진로직업탐색, 방송댄스, 스포츠평론가와의 만남 등의 수업을 진행하며 스포츠문화 주제 속에 여가문화, 환경문화, 지역 사회문화, 다문화, 진로를 융합하여 교육적 요소를 더하였다. 그리고 진로직업체험 기간에는 태릉선수촌과 한국체육과학연구원, 한국체육박물관을 가고, 안산 지역이 연고지인 러시앤캐시 베스피드 배구단의 배구경기도 관람하였다. 진로직업체험 기간 동안 아이들은 스포츠계통의 다양한 직업군인 체육행정직, 체육연구직, 스포츠산업, 체육교육 등의 직업들을 직접 보기도 하고 간접체험을 하여 체육계통 진로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크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된다. 이 모든 수업이 그냥 아이들을 인솔해서 다녀오면 되는 수업들은 아니었다. 직접 보고 아이들의 이동경로 체크부터 시작해서 사전조사를 통해 교육적 수업 요소를 추출해보고 경험해보는 일련의 과정이 학기 중에 저녁시간과 주말시간을 내어 하다 보니 고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짧은 교직경력 중에 가장 많이 애정을 기울였던 수업이었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는 자유학기제 선택프로그램의 경우 일정한 틀이 없다 보니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

01. 양궁 체험
02. 오리엔티어링
03. 인라인스케이트
04. 체육진로카드 만들기 활동



하는 것이 좋다. 선택프로그램 교육과정에서는 꼭 배워야 할 핵심 성취기준이 없고 내가 구성하고 정하는 수업이 아이들에게 그날의 성취기준이 된다. 수업을 준비하면서 수업주제별로 의미를 부여하고 아이들에게 교육적 요소를 뽑아내기 위해 더 많이 찾아보게 되고 더 많이 고민하게 되었다.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수업준비를 하면서 창의력이 더욱 발휘된다. 교사가 틀에 얹매이지 않다 보니 아이들도 자유로운 사고와 유연한 사고 속에서 자신감도 향상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데에서도 적극성을 띠는 아이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틀에 얹매이지 않고 교사와 학생 모두 창의력을 발휘하다 보니 수업혁신도 가능해졌다.

PC방 가던 아이 여가생활 바꿔… 공감대 형성하며 서로 응원

세 번째는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끼를 찾도록 수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축구 감독 체육교사가 꿈이라는 학생들이 이번 수업을 통해 자신의 꿈이 견고해졌고 지금부터 그 꿈을 위해 도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꼈다는 소감문을 발표했을 때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체육교사로서 참 보람되고 뿌듯했던 순간이었다. 또한 한 학생은 이번 학기 초반에 경험한 볼링이 너무 재미있고 즐거워서 주말이면 친구들과 함께 볼링을 치러 갔고, 첫 수업에서 57점을 치던 아이가 석 달 만에 169점까지 치는 대기록을 세우는 등 PC방에 자주 가던 학생들의 여가생활을 바꿨다는 보람도 느꼈다. 또한 네이버밴드(네이버 제공 모바일 커뮤니티로 스포츠문화체험반에서 사용함)에 자신의 소소한 일상, 스포츠 사건 자료 및 자신이 하는 운동에 대해 공유하고, 수업에서 느꼈던 점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준 점은 자신의 꿈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친구의 꿈과 끼도 응원해줄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함을 주었다.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아이들이, 또한 스포츠문화체험을 선택한 아이들이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적성과 흥미를 알고, 꿈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고, 자신과 공감대가 비슷한 친구들과 같이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서 14살 사춘기 시절이 의미 있고 열정적이었으며 행복했기를 바란다. ☺



'꿈 동아리' LTI프로젝트 학습법... 진로는 '이렇게'

글 | 이종수 경남 창덕중학교 교사

창덕중학교의 '꿈 동아리' 활동은 다양한 진로-직업 탐색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학생들의 배움 공간을 학교를 뛰어 넘어 지역사회로 확대하고자 추진하게 된 특색수업이다.

꿈 동아리는 기준 취미 중심의 동아리 활동을 벗어나서, 같은 진로 희망을 가진 학생들과 길잡이 교사, 외부 전문가 멘토,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LTI(Learning Through Internships) 프로젝트 학습 모형에 따라 운영된다. 꿈 동아리 활동은 기준의 창의적 체험활동(주당 3시간) 시간을 활용해 매주 목요일 오후 시간에 진행된다. 동아리 활동은 교내에서 이뤄지는 진로탐색 및 자기 계발활동, 관련 직업군의 외부 전문가 멘토 초청 강의, 외부 전문가 멘토의 직장 방문을 통한 직업 체험 등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동아리별로 교사와 함께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함께 활동함으로써, 교육공동체가 함께 학생들의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자유학기제를 완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15개 '꿈 동아리' 구성 운영

창덕중학교는 15개 꿈 동아리를 구성하기 위해 진로역량검사를 실시하고, 이 검사를 바탕으로 수차에 걸쳐 학생들의 진로 희망을 조사했다. 최초 40개 이상의 진로 희망별 모둠이 결성되었으며, 이를 통합해 15개로 편성했다. 예를 들면 의사, 간호사, 수의사를 희망한 학생들을 의료관련 동아리로 통합해 운

영하는 식이다. 아이들의 꿈은 아이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다양한 꿈 동아리 활동들이 모든 아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꿈에 적합한 학습 과제를 스스로 선정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별 LTI 프로젝트 학습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기반으로 자신의 학습과제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이들이 스스로 선정한 학습과제의 수행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길잡이 교사가, 가정에서는 학부모가, 지역사회에서는 전문가 멘토가 함께 참여해 아이들의 과제 수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

LTI 프로젝트 학습은 기본적으로 꿈 동아리에 속한 모든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보다 구체화된 학습 계획서를 완성하고, 최종적으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생들이 프로젝트 학습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LTI 프로젝트 학습에 지난해는 13개 과제에 31명(1학년 전체학생의 13.5%)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광옥 양은 친구 은별이와 '경찰이 될래요'를 주제로 창원서부경찰서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활동을 했으며, 민재홍 군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주제로 카누 연습장에서 활동했다. 이 외에도 '방송 제작자의 꿈', '네이버 도전 만화' 등 주제는 다양하게 진행됐다.

8주간 스스로 프로젝트 학습계획 세워

이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의 자율성과 학생에 대한



01. 소방서 견학
LTI 학습 과제
02. 방송 제작자의 꿈
03.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함께하는 '스포츠 스타'
04. '쿠키는 사랑을 전해요'

LTI 프로젝트 학습 운영 절차

단계	과정	과정 설명
준비단계	학생 관심사 알아보기	학생이 관심을 가지는 일이 무엇인가 알아보는 단계
	꿈 동아리 결성	학생 희망을 중심으로 하는 꿈 동아리 결성
실행단계	꿈 동아리 활동	소속 꿈 동아리 활동 계획에 따른 진로 직업 정보 학습 및 체험학습
	프로젝트 과제 신청	개인별 LTI 프로젝트 학습 과제 신청 및 신청서 제출
	프로젝트 과제 선정	LTI 프로젝트 학습 신청서 제출 ⇨ 담당 교사 검토 및 학생·학부모·담당교사의 공동협의를 통한 학습 계획서 완성 ⇨ 학교장 승인
평가단계	프로젝트 과제 수행	정해진 절차를 통해 계획서가 통과된 학생 프로젝트 과제 수행(주당 3시간×8주, 총 24시간)
	프로젝트 결과 제출	프로젝트 과제 수행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
정리단계	자기평가 및 교사평가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자기 평가 및 교사 평가서 작성
	LTI-PT Day	LTI-PT Day (프리젠테이션으로 활동 내용 발표)
	포트폴리오 완성 제출	학생보고서와 개인 블로그 등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완성 제출
	학습보고서 제작	학생보고서와 교사 평가서를 종합한 LTI 프로젝트 학습 보고서 제작

LTI 프로젝트 학습 과제 및 내용

성명	주제	활동 장소	외부 멘토	활동 일시
유○○	NAVER 도전 만화	가정	지율활동	목, 금요일
송○○ 외 2명	경찰 체험	창원 동읍파출소	정○○(경찰)	금요일
서○○	방송 제작자의 꿈	KNN 외	김○○(PD)	목요일
이○○	외교관의 꿈	가정	자율활동	목요일
민○○	올림픽 메달리스트	카누 연습장	배○○(코치)	목, 금요일
김○○ 외 2명	쿠키로 사랑을 전해요	베네뜨리아	왕○○(제과점 사장)	목요일
최○○ 외 1명	경찰이 될래요	창원 서부경찰서	윤○○(경찰)	목요일
윤○○ 외 1명	전자제품 서비스	하이마트	정○○(판매과장)	목요일
정○○ 외 4명	농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만남의 광장	배○○(농구코치)	목요일

믿음을 바탕으로 계획되었기에 원하는 학생들은 중간에 프로젝트 학습을 포기하고, 꿈 동아리 활동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8주 동안의 활동 기간 이전에 자신이 계획했던 학습과제를 모두 수행했다고 판단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프로젝트 학습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평소 지극히 소극적인 생활 태도를 보였던 ○○이는 자신이 계획한 프로젝트 학습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 주위를 놀라게 하였으며, 일명 학교의 짱으

로 불리면서 주위 친구들을 힘들게 하였던 ○○이는 프로젝트 학습을 통하여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었다. 아이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자라는 나무처럼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는 지속적으로 LTI 프로젝트 학습 활동을 수행하고 난 후에는 최종 보고서 제출과 함께 LTI-PT Day를 통해 자신들의 활동 내용을 발표한 아이들이 소수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도전할 것으로 믿고 있다. ☺



꿈과 끼 키우는 '행복수업'을 위해서는…

글 | 강신천 공주대학교 교수

문서로만 접했던 '자유학기제'의 개념이 다소 모호했지만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 방문하고서야 '꿈'이 있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자신의 끼를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 나가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자유학기제'는 아이가 행복한 교육을 위한 중요한 장치와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누구나 알고 있듯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시험'과 학습경험의 다양화이다. 이를 위해 수업의 내실화가 더욱 강조된다. 교사들은 대체로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철저하게 준비, 실행 그리고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하는 새로운 방식의 수업 만들기에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과정축적'으로 꿈과 끼 계발

교사는 학생을 이해하는 일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계발하도록 도와주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수업을 듣는 학생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고 각각의 학생이 무엇을 원하고 꿈꾸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쩌면 교사는 학생 스스로 자신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그 학생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학생에 대한 이해는 수업에 반영되고 자신을 인식해 주는 교사와 호흡하면서 수업의 선순환을 만들어낸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교사는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학생을 관리하거나 학생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는 일을 도와주는 일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는 학생의 과정축적을 도와야 한다.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성취하기 위해 학생에게 엄청난 과정축적이 요구된다. 학생 스스로 과정을 축적해 나가기도 하지만 교사는 수업을 통해서 또는 방과 후에 학생이 어떻게 자신의 꿈을 성



01. 교사는 수업을 듣는 학생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고 각각의 학생이 무엇을 원하고 꿈꾸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러한 노력의 과정을 쌓아 나갈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어야 한다. 과정축적은 학생 자신의 소중한 성장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으며, 상급학교나 진로를 선택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문제는 과정축적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보다 쉽고 빠르게 과정축적을 도와주는 도구 중의 하나가 FreeMind와 같은 개념맵을 그리는 소프트웨어이다. 자유학기제의 다양한 결과물을 자유학기제가 아닌 학기와 연계하기 위해서라도 개념맵을 그려 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자유학기제 동안 이루어지는 수업은 실험·실습 또는 참여·체험 교육활동이 강조된다. 이를 위해 정형화된 답을 찾는 선형적 지식 수업을 지양하고 비선형적이고 비정형화된 학습경험의 선정·조직을 통해 몰입학습을 유도하고 심화학습까지 연결하는 수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리나 개념 중심의 학습경험 그리고 사물 또는 사태의 본질을 통찰하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 실생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학습의 행복감을 느끼는 수업 운영이 요구된다.

'자율과정'은 학생의 흥미·관심사에서 출발

자유학기제의 시수·편제에서 '자율과정' 구성은 학생의 흥미나 관심사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자율과정 프로그램은 완전한 세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가급적 많은 학생의 흥미나 관심을 수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

며 각 프로그램은 기본, 심화, 보충을 위한 완전한 세트로 준비되어야 한다. 자율과정 프로그램이 철저하게 기획·준비되지 않을 경우 시간을 흘려보내거나 단편적·이벤트성 시도가 될 수 있으며 비효과적인 수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절된 자율과정 프로그램 운영으로 명료한 학업성취를 기대하기란 더욱 어렵게 된다. 또한 자율과정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개별 학습활동과 집단 학습활동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집단지성을 통한 문제

해결 학습활동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지만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왕성한 과정축적을 돋는다.

교사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해 학생이 가지게 될 능력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학생이 가지게 될 능력은 필요한 경우 국가수준의 성취기준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핵심성취기준’과 ‘일반성취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은 영역성취기준과 내용성취기준으로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연계 할 경우 국가수준의 성취기준 재구성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율과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학생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갖게 될 핵심 역량 중심의 핵심성취기준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자유학기제 수업 운영은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높게 요구된다. 특히 학습자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자신과 도전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습계약(learning contract)’의 방법을 활용해보라. 학습자 스스로 자신과 학습에 대한 약속을 하거나 학생이 자진하여 교사 또는 동료 학습자와 자신의 학습에 대해 약속을 함으로써 더욱 높은 실천을 기대할 수 있다. 교사는 학습 실천의 단계를 가급적 작게 나누고 각각의 실천에 대해 보상이나 환류하도록 한다.

융합·통합교육적 접근 필요

자유학기제가 기대하는 성과를 위해 가급적 단원 중심 또는 프로젝트의 주제 중심 수업설계가 필요하다. 단원 중심 또는 주제 중심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경험의 단절이나 탈 맥락적 수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최근 강조되는 융합교육적 접근이나 주제중심 통합교육적 접근을 위해 수업 운영은 블록타임제로 계획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차시 중심의 수업설계는 한계가 있다. 교수·학습과정안의 양식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수업의 맥락이 드러나는 시나리오 중심의 교수·학습과정안은 하나의 예가 된다.

무시험으로 운영되는 자유학기제라 하더라도 자율과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형성적 확인이나 학습자의 교육활동 포트폴리오를 통해 학생의 발달 과정을 점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사의 남다른 노력이 벌휘되어야 한다. 교사의 이와 같은 점검에 대해 학



자유학기제 수업 운영은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높게 요구된다. 특히 학습자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자신과 도전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습계약(learning contract)’의 방법을 활용해보라.



02. 03. 자유학기제에서 수업 내실화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꿈과 끼를 계발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생이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사는 비록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습자를 점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학습자의 꿈과 끼 계발을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수업 내실화는 수업을 통해 학생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얻게 되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자유학기제에서 수업 내실화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꿈과 끼를 계발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앞서 필자는 자유학기제에서 수업 내실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으며 이는 필자가 제안한 자유학기제 교육

과정 운영 기본 모델인 ‘자기발견 → 과정축적 → 세상발견’이라는 3단계 ‘나선형 꿈과 끼 계발 모형’에 기초하였음을 밝힌다. 모쪼록 필자의 제언이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수업 내실화를 위해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란다. ☺



진기용 충남디자인예술고등학교 교사

“교사는 아이들의 동반자입니다”



디자인 예술인재를 기르는 데 교육자로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 진기용(46) 교사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렇다. 한때는 화가를 꿈꾸던 그는 이제는 예술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에서 제자들이 예술적 재능을 키워낼 수 있도록 돋는 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를 ‘스승’이라기보다 아이들의 ‘동반자’라고 부른다.



몇 해 전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선수를 키워낸 체육교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했다. “밥도 해서 먹이고 집에 가서 재워주고… 그렇게 아이들 곁에서 항상 눈높이를 맞췄다.”고. 진기용(46) 충남디자인예술교사는 ‘그 마음’이라고 했다. 예술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에서 제자들이 예술적 재능을 꽂피울 수 있도록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 자신의 역할은 그 뿐이라 말한다.

“교단에 섰던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스승’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이자 친구지요. 곁에서 눈높이를 맞추며 같은 보폭으로 걸어가는 것, 제게 있어서 ‘선생님’은 그런 사람입니다.”

밤 12시까지 교실 불을 밝히는 교사

진 교사는 밤 12시까지 교실 불을 밝힌다. 기능대회를 준비하는 아이들을 지도할 때는 새벽 1~2시를 훌쩍 넘기기도 한다. 6살 난 딸에게는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해 미안한 마음뿐”이라는 그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아빠’ 같은 선생님이다.

“미술교사로 처음 교단에 섰을 때는 그림 그리는 얘기만 했어요.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날 따라오면 너희도 이렇게 잘 그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지식은 누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들과 서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그러다보니 저도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있게 되네요.”

부모 품에서 떨어져 기숙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 밥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생활하는 건 어느덧 일상이 된 지 오래.

교실 불은 주말과 방학에도 꺼지지 않는다. 200여 명의 전교생에게 교실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

특히나 아이들이 유독 그를 따르는 건 ‘한 발 더 다가서기’ 때문이다. “돈독한 유대 관계가 맺어져야 교육이 된다.”는 그는 아이들과의 친선 체육경기와 1:1 면담 산행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한다. 지도교사들과 학생들이 체육경기를 하면서 뛰고 구르고 땀 흘리는 사이 교사는 제자보다 높은 위치라 생각하는 ‘권위’를 내려놓고 학생들은 ‘마음의 벽’을 허문다. 웃고 한바탕 떠들썩한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는 그 전보



01. 진 교사는 스스로를 ‘스승’이라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한다. 그는 아이들의 ‘동반자’이자 친구이다.

02. 6살 난 딸에게는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해 미안한 마음뿐”이라는 그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아빠’ 같은 선생님이다.

03. 진 교사는 지역인사와 주변 지인들의 초상화를 제작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04



05

다 마음의 거리가 한 발짝은 더 가까워져 있다.

주기적인 사제동행 산행은 진 교사가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 중 하나다. 1:1 혹은 고민이 있는 아이들과 함께 보폭을 맞춰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이야기꽃이 활짝 핀다. “넌 무슨 일이 하고 싶니?”라는 말에 평소라면 묵묵부답인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털어 놓는다. “대학 입시 공부가 너무 부담이 돼요.” “집에 힘든 일이 생겼는데 마음이 힘들어요.” “실기 점수가 낮아서 고민이에요.” 툭 터놓는 말에 해답을 주는 건 아니지만 “같이 잘 해보자.”는 말 한마디의 응원은 아이들의 눈시울을붉게 만든다.

캐릭터 대회·깃발전 등 즐거운 ‘성장’ 모토

진 교사의 노력은 아이들이 각종 대회에서 상을 수상하며 진가를 발휘했다. 2009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애니메이션’ 분야가 신설된 이래 지방대회에서 금·은·동 메달을 휩쓸며 5년 연속 전국대회 출전권을 따내고, 2010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이례적으로 같은 학교 학생이 금·은 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기록했다. 2010년부터는 진 교사 또한 매해 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하며 학생들의 지도교사로서 주변의 신임을 두텁게 받았다. 올해는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 전교생 200여 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각종 대회에 참여할 계획도 세워뒀다.

“저도 그림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다보니 서로가 잘 통해요. 교사가 행복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이들이 변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건 가장 큰 기쁨이지요.”

성장하는 과정이 즐겁다면 금상첨화. 진 교사는 ‘성장’을 이뤄가는 과정이 아이들에게 즐거운 일이 되도록 여러 방법을 고민한다. 충남디자인예술고등학교 입구에는 진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만든 장승이 우뚝 서 있다. 지인의 도움을 받아 나무를 얻고 아이들이 통나무 위에 그림을 그리고 직접 조각해서 만들었다. 추운 날씨에 두꺼운 옷을 입고 나와 몇 날 며칠을 깎고 다듬어 만든 작품이다. 지금은 학교의 ‘명물’이 된 장승이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실력을 뽐내는 자랑거리이자 작품이다.

학교 본관 앞 캐릭터 그림들은 ‘교내 캐릭터 그리기 대회’의 출품작들이다. 진 교사가 기획한 이 대회



04. 진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 학교 입구에 세워 둔 장승
05. 학생들과 함께 학교 안내 간판 작업을 하는 진 교사
06. 학교 본관 입구에 걸린 '교내 캐릭터 그리기 대회' 출품작들
07. 교내 지투리 공간 곳곳은 아이들의 작품 전시장이다. 교내 벽에 아이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계단에는 그림을 그려 미관을 아름답게 꾸몄다.

는 교장·교감·교사 등 모두가 아이들의 캐릭터 대상이 된다. 주도면밀하게 인물의 특징을 잘 집어내는 캐릭터 때문에 아이들뿐 아니라 교사들도 웃음 짓게 만드는 대회다. 그 외에도 학교 깃발전, 교내 벽화 제작 등 진 교사는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획한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문화 이끌어

예술인재를 길러내는 교사로서 그는 지역문화를 이끌어 가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충청남도 교육감, 충청남도도지사, 충청지방경찰청, 서천군수, 서천교육장, 도의원 등 지역인사들과 주변 지인들의 초상화를 제작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아이들과는 함께 동네 벽화를 그리며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마을버스승강장,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에 벽화를 그리는 한편, 마을의 큰 지역축제인 주꾸미, 전어축제장 입구 벽화를 제작해 지역주민의 인기를 한 몸에 차지하기도 했다. 봉사활동으로 뿌듯함을 느끼는 한편으로 아이들은 대학 진학 시 자신만의 '스토리'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최근 그가 가장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건 '상인밴드'다. 사제동행 밴드에도 몸담고 있는 그는 지역 상인들과 밴드를 구성해 어르신들 앞에서 공연도 펼치고 지역축제 때 무대에 오르기도 한다. 기타 연주에 흥이 난 그는 교내에서 기타교실을 열고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치기도 한다.

"아이들에게 기타를 가르쳐 주면 아주 좋아해요. 실습 교실 뒤에서는 십여 개의 기타가 구비돼 있는데 음악 시간에 혹은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24시간 기숙생활을 하는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어요."

2002년부터는 한국예술협회 보령시 지부 대천극단을 만들어 뮤지컬 '도미부인', '울고 넘는 박달재', '아버지' 등에서 미술감독과 배우로 활동하며 보령시 연극문화 선두주자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함께 할 때 행복하다."는 그는 아이들과도 지역사회와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로서 위치를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

대전혜광학교

맞춤식 진로·직업교육 ‘학교기업’으로 자립 돋는다



비장애인에게도 ‘자립’이라는 단어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자립’은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특수교육의 최종 목표이면서 동시에 정신지체 자녀를 둔 모든 장애인가족의 소망이기 때문이다. 학교기업을 통해 장애학생들에게 자립의지를 심어주고 진로·직업교육에 활기를 불어넣는 대전혜광학교가 더욱 특별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전혜광학교 ‘해오름관’에는 진한 커피향이 풍긴다.

겨울방학 중이라 평소보다 조금 한산한 편이지만, 대신 계절 학기를 위해 학교에 등교한 학생들과 카페 ‘뜰’로 마실 나온 지역주민들이 조용한 학교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오전 10시경, 첫손님의 등장과 함께 카페가 분주해졌다. 어느 커피숍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풍경이지만, 사실 카페 ‘뜰’은 대전혜광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기업으로, 학생들의 직업재활 훈련장이면서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이다.

매니저의 도움을 받아 카운터에 선 김용한 씨는 거스름 돈을 챙기는 과정에서 조금 당황했지만 오늘 첫 손님 응대를 큰 실수 없이 마무리했다. 주문한 커피를 뽑는 손길이 어느 커피숍보다는 더디지만 카페 ‘뜰’을 찾은 손님은 누구 하나 ‘빨리 달라’고 재촉하지 않는다.

전공과·학교기업 운영… 장애학생 실습·취업 지원

1995년에 정신지체 특수학교 19학급으로 개교한 대전 혜광학교(교장 송석웅)는 올해로 개교 19주년을 맞았다. 현재 34학급의 유·초·중·고·전공과에 이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전공과 교육과정과 학교기업 ‘파인잡(Fine Job)’을 꼽을 수 있다.

장애학생들은 대부분 특수학교를 졸업하면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보호기관에 위탁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이 학교 학생들은 전문적인 직업재활 교육을 통해 ‘자립’

의지를 불태운다. 그 중심에 장애학생들에게 맞춤식 교육을 펼치는 전공과 진로·직업교육과 취업으로 이어지는 특색있는 학교기업 사업이 있다.

이 학교의 전공과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년간 맞춤형 무학년제로 운영된다. 획일적인 학년제의 틀에서 벗어나 개별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춰 교육이 이뤄지는데 크게 자립생활과 전문직업 교육과정으로 나뉜다. 전공과 70여 명의 학생들은 비누공방, 클린케이반, 조립생산·외주작업반, 서비스용역, 바리스타의 5개 분야의 8개 학급에서 실습하고 있다. 장애학생 한 명 한 명의 장애정도가 다르다보니, 반을 편성할 때도 학생들의 기능과 수행능력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결정한다.

학교기업을 담당하는 서혜란 부장교사는 “전공과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장차 직업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기본 태도와 직업기능을 익혀 장래 직업생활과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취업 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01. 특수학교 가운데 전국 최초로 학교기업을 등록한 대전혜광학교는 직업훈련 전용공간인 ‘해오름관’을 개관하고 5개 분야의 학교기업을 운영 중이다. ‘해오름관’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

02. 카페 ‘뜰’에서 실습 중인 전공과 학생들과 최우혁 교사(오른쪽)

03. 대전혜광학교 송석웅 교장





04



05

전국 최초 학교기업 등록… 특수교육 메카로 나서다

대전혜광학교는 2009년 특수학교 가운데 전국 최초로 학교기업을 등록했다.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1년 장애학생들의 직업훈련 전용 공간인 ‘해오름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으로 학교기업 ‘파인잡(Fine Job)’ 운영에 들어갔다.

‘파인잡(Fine Job)’이라는 학교기업에는 카페 ‘뜰’ 외에도 천연비누를 생산·판매하는 ‘비누공방’과 운동화 빨래 및 세탁 관련 분야의 취업을 위한 ‘클린케이’, 실습 중심으로 청소와 용역활동을 하는 ‘서비스용역’, 외주산업체의 임가공을 담당하는 ‘조립·외주활동’이 있다. 이처럼 전공과 와 학교기업은 두 개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듯이 장애학생들의 실습과 취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위해 서로 맞물려 운영되고 있다.

학교기업을 운영하는데 협력업체 및 지역주민은 든든한 지원군이다. 장애학생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3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스타벅스는 혜광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교육장을 리뉴얼하고 카페 내에 교육시설을 업그레이드하여 첨단시청각 시설, 다양한 교보재 시설을 갖추는 한편, 향후 바리스타 교육과정을 공유해 학생들의 경력 개발과 전문적 교육도 맡아서 할 예정이다. 성심당은 ‘바리스타반’ 학생들에게 카페에서 판매하는 쿠키 제작 연수 및 현장실습 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에스프레소코리아도 각종 커피 기자재 사용 연수를 비롯해 바리스타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공과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우수업체와 산학협력을 맺고 조립작업도 진행 중이다. 집계류를 하청으로



06

납품받아 조립하는데, 학생들의 소근육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이는 대부분의 보호작업장과 근로작업시설에서 임가공 조립을 실시하고 있어, 졸업 후 중증장애학생들의 작업 활동을 고려한 프로그램이다. ‘클린케이’ 빨래방에서는 운동화세척기, 불림기, 전용탈수기, 드럼세탁기, 신발전용 털취기, 신발 항균 건조기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비누공방도 실습을 통해 천연비누를 제작하여 교직원, 지역주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 직업재활에 ‘자신감’

대전혜광학교는 내실있는 전공과 교육과정 운영으로 2011년 전국 100대 학교문화 우수학교,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같은 해에 대한민국 좋은학교 박람회 우수학교, 2012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우수학교, 2013년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명실 공히 특수교육의 메카로 당당히 자리매김하였다. 지난해



07

04. 05. '파인집' 학교기업에서는 카페 '뜰'외에도 운동화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클린케이', 천연비누를 생산·판매하는 비누공방 등이 운영되고 있다.

06. 계절학기 프로그램으로 클레이공예에 도전한 학생들

07. 대전·충남 특수학교 최초로 지난해 비즈쿨에 선정됐다.

에는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대전·충남 특수학교 최초로 비즈쿨(Bizcool)에 선정되어 중·고등부, 전공과 학생을 비롯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비즈쿨 가족창업 지원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학교기업이 활기를 띤 배경에는 교직원들의 숨은 노력과 지역주민들의 인식변화가 큰 몫을 해냈다. 학교기업 초기, 교문에 학교기업 풋말을 거는 일조차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지역주민은 학교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당시 가장 큰 과제였던, 특색있는 교육과정과 장애인식 개선에 열정을 쏟았다. 학부모, 지역주민을 초청해 수시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에는 '해오름관'을 개방하고 천연비누 만들기, 바리스타 교육 등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40시간의 무료교육을 실시했다. 여기에 장애아이해교육을 덧붙였더니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무척 높았다. 그밖에도 학교담장을 허물고 학교부지와 그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했다. 지금은 학교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 지역주민들이 해오름관을 향하는 발걸음도 잦아졌다. 이곳에서 빨래방을 이용하고, 천연비누를 구입하며, 카페 '뜰'에서 이야기 꽃을 피우기도 한다. 카페 '뜰'에서 만난 양승희 씨는 "커피 값이 저렴해 지인들과 자주 이용한다. 세탁소에 가려면 상가까지 나가야하는데, 가까워서 빨래방과 비누공방을 자주 들르게 된다."고 말한다.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이뤄지고, 관심이 쏟아지면서 학생들에게 변화가 찾아왔다. 과거 학생들은 취업과 재활에 대한 한계에 부딪히면 소외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학교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제품을 지역주민들에게 판매하면서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벌어졌다. 지역주민들은 장애학생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고,

장애학생들은 직업교육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생겼다. 자신도 학교와 지역사회 일원으로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나도 할 수 있다'는 직업재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학교기업 카페 '뜰'에서 일하는 김용한군은 "설거지하는 일도 즐겁고, 커피 만드는 일도 즐겁다. 그런데 더 즐거운 것은 일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한다.

맞춤식 교육으로 직업교육 내실 다진다

장애학생들의 자립 의지는 취업률에도 영향을 주었다. 학교기업이 생기기 전 1, 2명에 불과하던 취업자가 2011년에는 졸업생 45명 중 10명이, 2012년에는 졸업생 43명 가운데 13명이 건강카페, 무지개복지센터 등 일반산업체에 취업하는 성과를 얻었다. 현재 전공과정 재학생 중에도 스타벅스, 건강카페, 대학교 구내식당 급식 보조와 우체국 우편 분류 업무 보조 등으로 일하고 있다.

송석웅 교장은 말한다.

"학부모들은 저와 대화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취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중증, 중복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배우는 속도도 느리고 반복훈련이 필요한데, 그래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한 명 한 명 맞춤식으로 실무능력을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올해는 직업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해로 삼아 교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대전혜광학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 한 뜻의 교직원들,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력, 그리고 내실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장애학생의 '자립'이라는 결실을 맺고 있다. ☎

무한상상실 ‘아이디어 실현’ 수업

“상상만은 이제 그만! 아이디어가 현실이 돼요”

국립과천과학관 무한상상실 ‘아이디어 실현’ 수업은 발명 아이디어 도출부터 이를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까지 돋는다. ‘상상반짝’, ‘상상노하우’, ‘상상만들기’로 대표되는 이 과정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일반인이 모두 대상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기초부터 시작해 ‘원하는 건 뭐든 만들어 본다’는 생각으로 창작의 힘을 길러주고 있다.



“침대가 저절로 진동하면 늦잠 자는 일이 없지 않을까?”

‘늦잠 안녕! 진동침대’ 아이디어를 고안한 김다미(태봉초 4) 양은 국립과천과학관 무한상상실에서 발명 아이디어를 얻었다. 사이언스 에듀케이터로부터 진동의 원리를 배우고 생활 속 진동 발명품들을 살펴본 후 생각해 낸 ‘다미표’ 발명 아이디어다. ‘진동로봇’을 직접 만들면서 전지의 힘을 이용해 진동으로 물체를 이동해 보는 경험도 쌓았다. 김 양은 “곰인형에 진동칩을 넣어 ‘움직이는 곰인형’도 생각해 봤다. 발명할 아이디어가 참 많다.”며 웃는다.

‘할머니 귀가 어두워 TV 음량을 너무 크게 키우시는데, 리모컨에 스피커가 달려 있다면 모두 덜 불편할 텐데…’

미래산업과학고에 다니는 권서원(18) 군의 아이디어와 상상은 무한상상실을 통해 현실화됐다. 그는 이곳에서 멘토를 만나 여러 차례 아이디어 회의를 갖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리모컨에 스피커를 내장하면 듣고 있어야 하므로 헤드셋과 연결할 수 있도록 리모컨을 설계하자 활용성을 더욱 커졌다. 권 군은 “무한상상실에 설치된 3D 프린터를 이용해 시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며 ‘주니어 발명가’로서 기쁨을 톡톡히 맛봤다.

국립과천과학관 무한상상실 ‘아이디어 실현’ 수업은 발

명 아이디어 도출부터 이를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까지 돋는다. ‘상상반짝’, ‘상상노하우’, ‘상상만들기’로 대표되는 이 과정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일반인이 모두 대상.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기초부터 시작해 ‘원하는 건 뭐든 만들어 본다’는 생각으로 창작의 힘을 길러주고 있다.

발명 기법으로 아이디어 도출하기

‘상상반짝’은 발명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사이언스 에듀케이터는 두 시간 동안 창의적인 문제해결방법(TRIZ) 기법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돋는다.

“원리를 이해하는 체험을 통해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도출하도록 돋고 있습니다. TRIZ 기법은 러시아의 알츠술러가 발명품 특히 20만 건을 분석해 얻은 발명 원리로, 발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 효과적인 발명을하기 위한 방법들이죠. ‘상상반짝’ 수업은 이러한 발명 기법에 기초해 진행됩니다.”

제희련 사이언스 에듀케이터는 TRIZ 기법 40가지 발명 원리 가운데, 기계진동 · 포개기 · 빛 등 8가지를 활용하고 있다. 진동로봇 만들기를 통해 전지의 힘으로 물체를 이동하는 ‘기계진동’, 색종이를 이용해 포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는 ‘포개기’ 등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 1월 10일 겨울방학을 맞아 ‘상상반짝’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윤모(청계초4) 군. 그에게 떨어진 이날의 특명은 ‘진동의 원리’를 이용해 발명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일이다.

“오늘은 진동의 원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스마트와치’는 전화가 올 때 진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진동을 이용해 상품화 한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지요.”

01. 국립과천과학관 무한상상실 건물 외관은 정육면체 블록의 각 면 색깔을 맞추는 ‘루빅스 큐브’를 본떠 만들고, 이를 다시 순기력으로 감싸 쥐고 있는 형상으로 꾸몄다.

02. 진동의 원리를 이용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학생

03. ‘상상반짝’은 발명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제희련 사이언스 에듀케이터가 진동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03

제희련 사이언스 에듀케이터는 발명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도록 ‘진동의 원리’부터 설명을 시작했다. 이어진 전동로봇 만들기에서 스티로폼으로 ‘무한도전! 무한상상호’ 배를 만든 성 군. 배가 헛바퀴를 돌자, “속도를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좋을까”라며 사이언스 에듀케이터와 골똘히 생각하는 눈치다. 생활 속 진동을 이용한 발명품까지 숙지한 후에는 자신만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졸음방지 책상’을 고안한 성 군은 “책상에 앉아 공부할 때 잠이 들면 의자가 진동한다. 사용하면 무조건 시험 성적이 오를 것 같다.”며 웃는다.

3D 프린터 등 설비 갖춰…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수많은 머릿속 상상을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은 ‘상상노하우’와 ‘상상만들기’다. ‘상상반짝’에 초·중생의 참여가 활발하다면, 제작 과정에는 고등학생부터 일반 성인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나 상상노하우는 전문가들을 멘토로 만나 아이디어 토의를 통해 상상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먼저 아이디어를 무한상상실 이메일(i_knowhow@naver.com)로 보내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무한상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5명씩 그룹별 토의를 갖는다. 아이디어 회의를 거치는 동안 서로 아이디어를 제작 가능한 상품으로 구체화하고, 전문가 조언을 통해 시제품을 만들어 보게 된다. 크기가 변하는 ‘컵라면 용기’와 탈부착이 가능한 ‘레인



04

‘상상반짝’ 프로그램



① 사이언스 에듀케이터는 발명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도록 ‘진동의 원리’부터 설명한다.



② ‘진동로봇’ 만들기를 통해 원리를 체험하는 과정. 전자의 힘을 이용해 진동으로 물체를 이동시킨다.



③ 진동으로 인한 생활 속 발명품들을 보고 난 후 자기 만의 아이디어를 고민한다.



④ 그림으로 그려 자신의 생각을 발표한다.

04. 상상공작실에는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 공작기계가 갖춰져 있어 제품을 원하는 모양으로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 아이들이 레이저 커터의 사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부츠’는 상상노하우를 통해 완성된 제품이다.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형태, 소재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즉, ‘어떻게’에 초점이 맞춰지지요. ‘상상노하우’에서는 전문가 멘토를 통해 조언을 받기도 하지만 5팀이 모여 서로의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상상을 구체화시킵니다. 집단지성의 힘이 창작을 이끌어 내지요.”

유만선 국립과천과학관 공업연구사(공학박사)의 말이다. 무한상상실은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고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 총 160m²의 공간에는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상상토의실’과 상상한 제품을 실제로 제작하는 ‘상상공작실’이 있다. 공작실에는 3차원(3D) 프린터와 레이저 카터, 대형CNC라우터, 탁상용CNC조각기, 비닐 커터 등 공작기계가 갖춰져 있어 제품을 원하는 모양으로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 ‘상상만들기’는 언제든지 디지털 제작 장비로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다.

공작실험실로 ‘창작력’ 키운다

“3D 프린터와 같은 고가의 장비를 미래에는 태블릿PC와 같이 개인마다 구비하는 시대가 옵니다. 직접 아이디어

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쉽고 가까이에서 생긴다는 얘기지요. 무한상상실은 이러한 미래에 대비해 창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곳입니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창의력’을 강조해 왔는데, 정작 이를 실현하는 ‘창작력’ 교육은 이뤄지지 못했지요.”

유만선 공업연구사는 무한상상실이 ‘창작’ 교육의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미국이나 네덜란드 등에서 유행하고 있는 ‘랩랩(제작실험실)’처럼 가상의 제품과 아이디어가 생명력을 얻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생각이다.

특히나 올해 초에는 교육 커리큘럼을 일반화해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화상회의 시스템이 갖춰진 학교에서는 원격교육을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올해 안에 문학과 연계한 과학창작 스토리텔링 과정을 개설하고 교사 직무연수와 연계한 워크숍도 진행할 계획이다. ☎

국립과천과학관 무한상상실

토의실 ☎ 02)509-6930 / 공작실 ☎ 02)509-6931
홈페이지 www.sciencecenter.go.kr

무한상상실

무한상상실은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난해 8월 1일 국립과천과학관 내에 1호점이 문을 열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무한상상실 1호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전국 도서관, 우체국, 주민센터 등에 총 244곳을 개소할 예정. 현재는 국립과천과학관을 비롯해 국립중앙과학관, 광진정보도서관, 목포공공도서관, 한국발명진흥회, 광주 광산구 신창동주민센터 등 7곳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운영하는 무한상상실 홈페이지(www.ideaall.net)에서는 전국의 무한상상실 운영기관과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서로 아이디어를 등록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관	특징	연락처
한국발명진흥회	3~5명으로 구성된 ‘청년 아이디어클럽’ 15팀을 운영하면서 이들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02)3459-2933
국립중앙과학관	아이디어 발명교실, IT Lab(IT 연구실) 상상탐구교실, 디지털공작실(Fab-Lab) 프로그램 운영	042)601-7971
서울광진도서관	스토리창작소에서 전문 스토리텔러 양성을 위한 ‘스토리텔러 아카데미’ 운영	02)3437-5092
목포공공도서관	해양과학 도서 등 자료 약 2,000여 권이 마련된 ‘해양과학상상자료실’과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해양과학상상교실’ 운영	061)270-3814
광주신창동주민센터	인문학, 예술, 신체활동 등을 과학과 접목한 강좌 등을 개설한 ‘창조놀이터’와 재활용품을 기반한 발명품으로 만드는 ‘발명놀이터’ 운영	062)960-7772
서울서초3동우체국	초·중·고등학생과 성인을 위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이야기 우체통’ 운영. 스토리텔링 이론 강의와 작성 실습, 전자책(e-book) 발간 등 진행	02)2195-1127

조선시대에도 졸업식이 있었을까

1931년 겨울의 일이다. 강원도 홍천에 사는 남궁억(1863~1939년)은 연희전문학교 졸업식 축사 요청을 받고 제자와 함께 길을 나섰다. 어느 정도 걸었을 때 제자가 조심스럽게 자동차를 타시라고 권했다. 68세 나이와 추운 날씨를 감안해서였다. 하지만 남궁억은 ‘우리 손으로 만들면 타고 가세’라는 말로 거절하고 3백리 길을 3일 동안 걸어 경성에 도착했다. 그리고 남궁억은 졸업식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내가 널리재를 넘어 학교까지 눈길을 오는 동안 앞서 간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왔고 없을 때는 나 스스로 길을 뚫어 여기까지 왔듯이, 여러분처럼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교육을 받지 못한 농촌 농민들에게 달려가 그들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남궁억이 누구인가? 1898년 〈황성신문〉 초대 사장을 지냈고, 무궁화 사랑하기 운동을 통해 국민의식 개혁에 앞장선 독립운동가이다. 그랬던 만큼 그의 축사는 졸업생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큰 영향을 끼쳤다.

졸업보다 더 중요했던 입학식

남궁억은 ‘졸업식’과 관련해 그 자신도 역사적 변혁을 몸소 겪은 인물이다. 20세까지는 서당에서 한문을 공부했으나, 진로를 바꿔 1884년에 재동의 관립영어학교를 졸업했으니 말이다. 남궁억이 한문책 대신 영어책을 끼고 다니자 문중과 친구들이 심하게 반대했지만, 그는 근대화에서 영

어의 필요성을 느껴 굳건히 학업에 정진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며, 1889년에는 고종의 어전통역을 담당했다.

다른 관점에서, 남궁억의 학교 변경은 공부에 대한 전통관념이 새롭게 변함을 예고하는 일이기도 했다. 우리 역사문화를 훑어보면 어떤 일을 마쳤을 때보다 시작할 때 사실상 더 큰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집을 지은 뒤 들어가 살기 전에 터줏대감에게 고사를 지내거나 출항을 앞두고 어부들이 무사고를 기원하는 고사를 지낸 따위 일들이 그렇다. 교육에 있어서도 졸업식보다 입학식을 더 중시했다.

한 예를 들면 조선시대 왕세자는 첫 교육을 받기 전에 성균관 대성전으로 가서 공자에게 먼저 술잔을 올리는 제례를 치른 다음, 명륜당으로 가서 스승에게 정성 담은 예물을 드리고 가르침을 청하는 게 관례였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지식의 완성보다는 학문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더 중요하게 여긴 데 있다. 사서삼경(四書三經)을 기본 교재로 삼은 것도 덕성을 키우기 위함이었고, 이밖에 퇴계 이황의 〈주자서절요〉, 율곡 이이의 〈성학집요〉 등 성리학 교재를 곁들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행한 일이었다.

양반 자제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서도 입학식은 가장 신성한 의식이었다. 그러하기에 한양의 성균관이나 지방의 향교에서는 새내기 학생들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고유례(告由禮)를 행했다.

‘고유’는 큰일을 치르고자 할 때나 치른 뒤에, 그 내용을

교육에 있어서도 졸업식보다 입학식을 더 중시했다. 그 이유는 지식의 완성보다는 학문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더 중요하게 여긴 데 있다. 사서삼경(四書三經)을 기본 교재로 삼은 것도 덕성을 키우기 위함이었다.

신명이나 사당에 모신 조상에게 알림을 뜻하는 단이다. 이 때 제사를 지내면 고유제(告由祭), 예절의식을 치르면 고유례라고 한다. 성균관 학생들은 고유례를 치르며 공부에 대한 굳센 각오를 다졌으며, 이후 성균관에서 지내면서 학업에 힘썼다. 나라에서는 성균관 학생이 300일 이상 열심히 공부하면 문과 초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입학 규정은 엄격해도 재학 기간이나 졸업일은 따로 정해진 게 없어서 과거에 합격한 날이 곧 졸업이었다.

근대화 이후 졸업식 비중 커져… ‘졸업장=자격증’ 문화 생겨나

초등 교육기관인 서당에서도 별다른 졸업식이 없었다. 책 한 권을 암기하면 축하 및 격려 차원에서 떡을 돌리는 게 전부였다. ‘책씻이’라 불리는 관례를 일종의 개별 졸업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요컨대 조선시대 학생들에게 학업은 멈추지 말아야 할 행진이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19세기 말엽 근대화 물결이 이 땅에 들이닥치면서 졸업이 입학보다 중요해졌다. 근대적 교육기관을 졸업했다는 것이 일종의 자격증처럼 여겨진 까닭이다. 앞서 언급한 남궁억이 고종의 영어 통역관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관립영어학교를 졸업한 덕분이었다. 교육과정 수료보다 과거 시험 통과를 절대시했던 이전 사회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이와 더불어 입학식보다 졸업식 비중이 커졌고, 유명인사가 졸업식장에서 축하를 하거나 학부모들이 졸업식에

참석하는 관습이 생겼다. 또한 졸업장은 자격증이 되어 다음 단계의 교육기관 입학 수단이 되거나 취직 조건이 되었다. 오늘날 성균관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고유례를 올리는 것도 졸업식 강조의 세상을 보여주는 풍경이다. ☐



샌프란시스코한국교육원

한국 청소년들에게 ‘정체성’ 교육 지원 미국 현지인들에게 ‘한국어’ 보급 앞장



01

미국에서 한국인과 인연이 깊은 곳으로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를 빼놓을 수 없다. 이곳은 1903년부터 시작된 하와이 이민자(약 7,000여 명) 가운데 약 2,000여 명이 이주한 곳으로 안창호, 장인환 등 독립지사들의 활동과 독립자금 공급 등 미주항일독립운동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샌프란시스코에는 15,000명 정도의 한인이 거주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산호세(San Jose)지역에도 4만여 명의 한국 재외동포들이 있다.

한국인이 많다보니 한인회도 활발하다. 현재 4개의 한인회가 북부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일간지, 주간지, 한인TV 등 다양한 동포언론사들이 미주지역과 국내소식을 신속히 전하고 있다.

이민사회 중심 차세대로 이동하며 ‘정체성’ 관심

북부 캘리포니아지역에는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67개의 주말한글학교가 있으며, 콜로라도, 유타지역 등 관할지역 내에 모두 82개의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교

회를 중심으로 한글과 한국문화 등을 가르친다. 한인으로서의 뿌리를 알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기성세대인 한인들이 주말마다 폐고 있는 봉사의 힘이다. 하지만 이민사회의 중심이 점차 2세대, 3세대로 이동하면서 이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성장하도록 하는 일이 적지 않은 고민거리이다.

1987년 개원한 샌프란시스코한국교육원(원장 신주식, 이하 교육원)은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확립을 돋는 동시에 미국 현지인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중추역할을 맡고 있다. 교육원은 북부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유타주, 와이오밍주를 관할한다. 이곳에는 82개의 주말한글학교에서 865명의 교사들이 4,949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6개 정규 초·중등학교, 21개 학급에서 443명의 학생들이 정규과목으로 한국어를 배운다(2013년 12월 기준). 이외에도 미국 성인 대상 2개의 한국어강좌 운영, 한국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교사(TaLK) 모집,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등 교육 관련 다양한 활동을 펼고 있다.

신주식 원장은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은 거주국과 한국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중요한 해외 인적 자산인 동시에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민간 외교관인 셈이다. 이들이 한국과 한국어를 제대로 알고 이를 토대로 한인동포로서 민족적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고 말한다.

교육원은 지난해 4월과 5월에 걸쳐 한인 청소년들을 위한 옴니버스 특강 ‘Beyond Your Limit’를 실시했다. 한국계 청소년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성장하도록 돋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 주류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은 한국계 청소년들에게 롤 모델(Role Model) 및 멘토(Mentor)로서의 역할을 기꺼이 맡아주었다. 삼성전자와 애플사의 스마트폰 관련 특히 소송을 담당했고, 아시아계 여성으로는 미국 최초의 연방판사인 Lucy Koh, 클린턴정부시절 대북특사의 일원으로 북한을 3번이나 방



02



03

01. 샌프란시스코의 상징물이 된 금문교

02. 03. 한인 청소년들을 위한 옴니버스 특강 ‘Beyond Your Limit’에서 루시 고 판사의 강의 모습

문했던 북한전문가 Philip Yun, 세계적인 쇼셜네트워크 기업인 Facebook의 제품생산 매니저인 Koun Han, 세계적인 온라인 네트워크 게임업체 사업총괄사장(COO) David Ko… 미국사회, 나아가 세계를 움직이는 기라성 같은 이들이 교육원의 취지를 이해하고 강연자로 흔쾌히 나서주었다.

매회 사전접수를 받아 실리콘밸리에 있는 KOTRA 대회의실에서 토요일마다 특강을 진행했다. 강사들의 열띤 강의와 이어지는 학생들과의 진지한 질의응답을 통해 기성 세대 한인들은 차세대 청소년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청소년들은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롤 모델들로부터 그들의 삶과 분야별 전망 등을 직접 들을 수 있



04



05

04. 한글학교 동요대회

05. 릴리엔탈학교에서 펼쳐진 추석 행사

06. 샌프란시스코한국교육원은 릴리엔탈학교의 중학교 과정 한국어반을 개설하기 위해 기금마련행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말부터 한국어반이 개설·운영되고 있다.

07. 한국어교사자격증시험 대비 연수 후 수료증 수여 장면

었다. 한인으로서의 민족적 자긍심과 진로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가진 뜻 깊은 자리였다. 지역 한인언론사들은 매주 월요일 1면에 지난 토요일의 특강내용을 지상 중계했고, 이후 여러 한인단체들이 벤치마킹하여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미국 정규학교에 한국어 강좌 속속 개설

한국어에 대한 인기는 한인사회를 넘어 미국 현지 인들에게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릴리엔탈학교(Claire Lilienthal Internative School)는 초등과정과 중학교 과정이 결합된 학교이다. 이 학교에는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Korean Immersion Program)이 운영되고 있는데, 많은 비한국계 미국학생들도 수강하고 있다. 그동안 초등과정에만 한국어과정이 개설되어 있어서 고학년 학생들의 학습의욕이 떨어지고, 한국어 교육이 단절되는 등의 문제점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교육원은 학부모회(San Francisco Korean Immersion Education Alliance, SFKIEA)와 함께 총영사관 리셉션 룸에서 한국어반 기금마련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여러 차례 샌프란시스코교육구를 방문해 중학교 과정 개설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지난해 8월말부터 중학교과정에도 한국어반이 개설되는 쾌거를 이뤘다. 교육원이 한국어 교육 확산을 위한 첨병역할을 다한 것이다.

신주식 원장은 재임기간 동안 샌프란시스코에 적어도 3개 이상의 정규 미국학교에 한국어반을 개설하겠다는 각오를 품고 있다. 한인 청소년들이 주류사회에서 한국계미국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미국사회 내에 한국어를 더 많이 알리고 한국어를 보급하는 일에도 매진하겠다는 뜻이다. 신 원장은 “주말 한글학교를 통해 우리 한인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정규학교에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 청소년과 일반 미국 청소년들이 함께 배우는 것이기에 향후 미국사회에 한국이 어떻게 인식되는가 하는 측면과 그 속에서 한인 청소



06



07

년들이 모국인 한국에 대해 어떻게 배우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오혜옥(53) 씨는 교육원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한국어 교육 확대와 교육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 한다. 오 씨는 미국 정규학교에 한국어강좌가 개설된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자랑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그는 “미국 정규학교에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미국 아이들까지 ‘한국어’를 정식과목으로 배운다는 사실은 한국인으로서 큰 자부심을 갖게 한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며 이와 같은 성과를 만들어낸 교육원에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나타냈다.

교육원이 지난해 6월과 7월 북가주 한글학교 협의회와 공동으로 실리콘밸리 지역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미국 교과서 내에 한국과 관련된 부분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올해에는 미국 교과서 내에 한국을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알리는 일을 교육원의 현안사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한인단체, 학부모 등과 함께 주정부 교육부, 교육구, 학교, 출판사 등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다. 특히, 내년 7월에는 캘리포니아주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있어 올해 활동이 여느 해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교육원은 관계자들과 협력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인청소년 미국 정착 돕는 멘토링 서비스까지

한편, 교육원에서는 한인대학생과 청소년을 연결해주

는 멘토-멘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을 좇아 미국으로 왔지만, 언어적 문제, 직업적 불안정성, 한국과의 교육시스템 차이로 인한 자녀교육의 어려움 등 타국에서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이 하나둘이 아니다. 교육원은 한인동포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북부 캘리포니아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한글학교에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지역 한인대학생과 청소년을 멘토-멘티로 연결해주는 것이다. 이민 1세대 부모가 학생들에게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없는 진로상담이나 미국 사회제도에 대한 이해, 학습지도 등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미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한인대학생들이 형과 누나로서 도와준다. 현재 자원봉사 대학생 5명이 12명의 청소년들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샌프란시스코한국교육원은 또 한 번 변화한다. 초급과 중급 2개 수준으로 운영 중이던 한국어강좌를 확대한다. 회화반을 신규 개설해 중급 이수자들은 물론, 한국어에 관심 있는 미국인들까지도 수강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힌다. 또한 시험 시행상의 보안문제 등으로 북가주 3개 시험장에서만 운영되던 한국어능력시험을 올해부터는 콜로라도 지역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교육원 홈페이지도 일부 개편된다. 한국어반 관련 내용도 자세히 알고리 Facebook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홍보도 강화된다.

샌프란시스코한국교육원은 교민 2세대, 3세대들의 한국인 정체성 교육을 넘어 미국사회를 파고드는 한국어 보급기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면서 혁신과 진화를 거듭하는 중이다. ❸



01 서남수 장관은 연말연시 소외 계층에 대한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인 세종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다. 서 장관은 아동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치원과 초·중학생들을 격려하고, 소정의 격려 금품을 전달했다. (1월 20일) **02** 서남수 장관은 지난달 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열고 2014년 새해의 각오를 다지는 한편, 우수공무원들에게 훈·포장 및 상장을 수여했다. **03** 지난 1월 8일 서남수 장관은 '국가 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 조찬 모임을 갖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문·이과 통합과정 개발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한덕수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04** 지난 1월 13일 서남수 장관은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 교육장협의회 동계연수'에 참석해 자유학기제 추진 계획과 교과서 제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는 특별강연을 가졌다. **05** 서남수 장관은 지난 1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2014 한국 수학의 해 선포식'에서 격려사를 전했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수학의 저변을 확산하고 창의적 수학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4 세계수학자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수학 선진국 도약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가기로 했다. 06 지난 1월 16일 서남수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로켓 발사 이후 서해안 경계 작전, 재해 재난 대민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육군 32사단을 방문했다. 07

서남수 장관의

행복한 교육 이야기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잠재력을 찾아내고
키워주는 창의교육,
사람됨을 길러주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공교육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남수 장관의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nsseomoe>



블루존 캠페인



교육부는 학교의 사각지대에 벽화를 그려 낙후된 학교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블루존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블루존 캠페인'은 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벽화 디자인을 통해 학교 환경을 개선하고자 범죄예방 환경설계 요소를 적용한 캠페인으로, 서울 오남중을 시작으로 오는 6월까지 8개월 동안 총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블루존 캠페인'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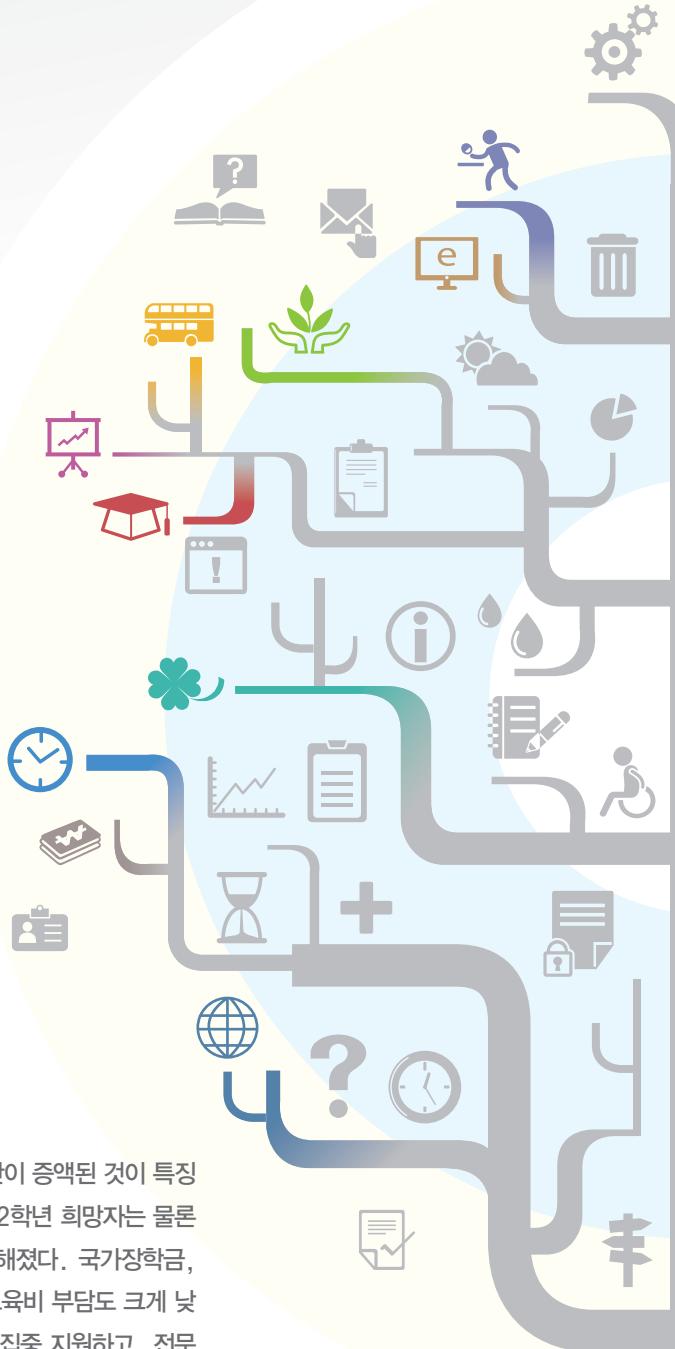


기획Ⅲ

2014 따뜻한 교육, 행복한 변화

- ▶ 2014 교육부 예산
- ▶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 ▶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지원
- ▶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 특성화
- ▶ 세계로 프로젝트+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화
- ▶ 행복기숙사
- ▶ 학교체육 활성화
-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
- ▶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
- ▶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교육부의 올해 예산안은 교육 분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이 증액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초등 돌봄교실이 크게 확대되어 올해부터는 초등 1~2학년 희망자는 물론이고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학생들은 추가 돌봄이 가능해졌다.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대학등록금 지원을 확대하여 대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도 크게 낮췄다. 또 지방대학과 전문대학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부분을 집중 지원하고, 전문직업교육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교육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학업중단으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이 다시 학업을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열악한 환경의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습여건 등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따뜻한 교육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 더욱 따뜻한 우리 교육과 행복한 변화를 살펴본다.



교육부 예산 54조 2,481억 확정… 4,217억 증액

초등 돌봄교실·대학등록금 지원 등 국정과제 이행에 집중

2014년 교육부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4,217억 원이 증액된 54조 2,481억 원으로 확정됐다.

우선,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예산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저소득층 가정 학생 위주의 돌봄 서비스를 했으나,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희망학생에게 오후 5시까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 등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밤 10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국고 및 지방비 6,10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증액된 국고 1,008억 원 등을 투입하여 돌봄교실 9,600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총 17,000실의 돌봄교실에서 약 33만 명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등록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지난해 2조 7,750억 원에서 올해 3조 4,575억 원으로 확대·지원한다. 등록금 전액지원 범위를 기존 소득하위 기초~1분위에서 기초~2분위까지 확대하여 100% 지원하는 동시에 소득 6분위까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 수준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 더불어 다자녀가구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올해 신입생 중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에게 연간 4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수 인재의 지방대학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인재장학금 1,000억 원을 신설·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생들의 근로장학금도 확대된다. 지난해 1,431억 원에서 올해 1,943억 원을 지원하며 근로장학금 수혜인원을 78,750명에서 10만 명으로 확대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

한 교내외 균로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지방대학의 경쟁력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2,031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방대학과 지역사회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기업과 대학 간의 공동 기술개발 과제 등에 지원하여 대학 석·박사 과정생을 지역·현장 맞춤형 혁신 인력으로 양성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76억 원을 투자하여 신규 53과제를 포함한 총 158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 등을 통해 전문 직업 교육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대학의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경제의 역량 있는 핵심 직업인재 양성을 위해, 78개 전문대학을 선정하여 2,69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교육·훈련-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학습모듈개발에 141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이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해 나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교육부는 저소득 가구 및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에 나선다. 올해 행복(공동)기숙사 사업, 행복(연합)기숙사 사업, 글로벌교류센터 건립 등 행복기숙사지원사업으로 총 86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❷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6천여 억 투입… 지난해 두 배 규모

“초등돌봄교실에서 퇴근때까지 안전하게 돌봐줘요”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 두 자녀를 둔 박귀영 씨는 요즘 직장생활이 더 즐겁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엄마 퇴근시간 까지 학원을 전전하던 아이가 올해부터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학교의 돌봄교실 인원 제한으로 아이들을 여러 곳의 학원에 보내며 전전 궁금 했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희망하는 학생 모두를 돌봄교실에서 퇴근 때까지 돌봐주기 때문이다.

“제가 퇴근할 때까지 학교에서 안전하게 돌봐주는 것은 물론, 숙제도 하고, 종이접기, 줄넘기, 홀라후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미있게 보내더라고요. 저 역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 준비에 아이들 과제 확인까지, 정말 힘에 부칠 때가 많았는데, 돌봄교실에서 간식도 먹고, 숙제도 하고, 다양한 활동까지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니 여간 반갑지 않습니다. 돌봄교실을 통해 사회안전망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올해부터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대폭 확대되면서 맞벌이가정마다 큰 호응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올해 국고 및 지방비 6,109억 원의 예산을 지원

할 계획이다. 이것은 지난해 대비 3,191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지난해 대비 두 배 가까운 예산을 새로 편성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학교 안전망 안으로 끌어안으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오후 5시까지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던 방과후 돌봄프로그램을 올해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연차적으로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는 1·2학년, '15년에는 3·4학년, '16년에는 5·6학년으로 연차적으로 확대된다. 추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자녀에게는 오후 10시까지 급식 및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교육부가 지난해 5월 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돌봄교실을 이용할 학생수는 오후돌봄 33만1,000명, 저녁돌봄 12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금까지 이용한 학생수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교육비 경감은 물론,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학부모, 특히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❷



올해 국가장학금 3조4575억 지원… 내년 ‘반값등록금’ 실현

저소득층·다자녀 학생 대학등록금 부담 대폭 줄어든다

올 2월 대학 졸업장을 받는 서지혜(23) 씨. 경희대 생체의공학과에 재학 중인 그는 지난 4년간의 대학 생활이 꿈만 같다. 연간 1천만 원이 넘는 대학등록금 걱정 없이 무사히 공부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그는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덕을 톡톡히 봤다고 말한다.

일용직 근로자인 아버지의 경제활동으로 어머니, 삼남매를 포함한 다섯 식구가 먹고 살면서 서 씨에게 생활비와 등록금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근로장학금은 그의 든든한 ‘힘’이 돼 주었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 교내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그는 아르바이트할 때보다 학업에 더욱 열중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학과 수석을 차지, 2학년 때는 해외 전공 연수에 당당히 합격해 미국 연수도 다녀왔다. 여동생 대학 입학을 앞두고는 국가장학금 지원까지 받으며 등록금 전액을 마련할 수 있었다. 앞으로 대학원에 진학해 뇌공학을 전공할 예정인 그는 “국가장학금은 어려운 상황의 나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었으며, 미래를 그리게 해 주었다.”고 말한다.

올해부터는 서 씨와 같이 저소득층 학생이 대학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돋는 국가장학금이 대폭 확대된다. 올해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 장학금(I 유형) 2조8,350억 원, 대학자체노력 연계 장학금(II 유형) 5,000억 원, 다자녀(셋째 이상) 국가장학금 1,225억 원(신규) 등 총 3조4,575억 원으로 지난해의 2조7,750억 원 대비 6,825억 원이 늘었다. 여기에 2,000억 원 규모의 근로장학금, 100억 원 가량의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을 포함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은 3조7,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 교내외장학금, 대학자체노력을 포함한 대학 지원분 3조원 수준을 포함하면 올해 등록금 부담경감률은 48%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 최하위계 층인 기초~2분위까지 100%를 지원하는 동시에 소득 6분위까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수준을 올리기로 했다. 올해 지원기준금액은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 수준인 450만원 수준이며, 6분위까지 계층의 대학생은 지난해보다 22만5000원~180만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분위는 최고 한도인 450만원(지난해 270만원), 3분위는 337만5000원(지난해 180만원), 4분위는 247만5000원(지난해 135만원), 5분위 157만5000원(지난해 112만5000원), 6분위 112만5000원(지난해 9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7분위와 8분위는 67만5000원으로 지난해와 같고 가장 낮은 기초생활대상자와 1분위는 최고한도인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C학점 경고제’도 처음 도입된다.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을 80점(B학점) 이상으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올해 2학기(반영 성적은 1학기)부터 기초~1분위 대학생은 1회에 한해 C학점을 취득해도 국가장학금을 지원토록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의 특징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중하위 저소득층 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면서,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에 대하여 국가 책임지원을 시작한다는 점”이라며, “기초~8분위 이하 120만 명 이상의 대학생이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대 특성화 사업에 5년간 1조 투입 &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

‘대학별 특성화’를 통해 강한대학으로 거듭난다

대학 “대학 체질을 위해 OO학과를 집중 육성, 지역 우수인재의 유입과 대학 이미지 개선”

학생 “특성화 학과로 진학, 선진화된 교육과정과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당당하게 사회에 첫걸음”

기업 “지역의 어려운 중소기업으로서 성장 동력을 위한 애로기술을 지역대학과 공동 개발하여 지역 창조경제의 대표주자로 발돋움”

주민 “소외계층으로 상당기간 사회에서 고립되었으나, 인근 대학의 도움으로 상담 및 기술 훈련을 지원받아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다시 돌아감”

‘대학의 비교우위’를 통한 지방대학의 변화가 시작된다. 교육부는 백화점식 학과 운영 등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지역과 대학의 강점 분야를 중점적으로 차별화하여 ‘강한대학’으로 변모시키는 ‘지방대 특성화 사업’에 5년간 1조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594 억 원 증가한 2,031억 원을 투입,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대학으로의 변화에 첫발을 내딛을 전망이다. 특성화 사업은

기관이 아닌 사업단 단위로 지원되며, 특성화

관련 지표가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반영된다. 교육부는 대학 차원의 구조개혁 방안이 포함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함께 평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근 지역의 산업, 문화 여건 등을 고려한 지방대학 특성화를 통해 지역 생태계 복원의 구심체 역할을 지역 대학

에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지방대 모집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시행된다. 또한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선발 공무원 중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확보하며, 공공기관 및 기업(상시근로 300인 이상)은 신규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13.12.31 본회의 의결)이 시행된다.

한편, 전문대학 특성화를 위해서는 ‘특성화 전문대학’을 집중 육성한다.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점기관으로 강화하는 ‘특성화 전문대학’은 올해 78개교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100개교가 선정된다. 이중 특성화 전문대학 84개교는 강점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초점을 맞추게 되며, 일자리 중심의 직무수행도가 높은 핵심 인력을 매년 15만 명씩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또한 평생직업교육대학 16개교는 100% 능력단위 실무형 비학위·학위과정을 통합 운영하여 미래형 고등직업교육 운영체제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보다는 157억 원이 늘어난 2,696억 원을 지원, 전문대학의 특성화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업연한 1~4년 다양화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연 20개 사업단 600명 해외 교육)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7년까지 전문대 취업률을 8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라며 “특성화 전문대학은 학별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전문대생 해외취업 촉진에 신규 31억…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에 120억 투입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 시대 온다

전문대학생들의 취업 무대가 한층 넓어진다.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전문대학 육성 방안의 하나로 올해부터 ‘세계로 프로젝트’ 사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31억 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하고 전문대학생의 해외 취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로 프로젝트’란 국내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전문대학생의 해외취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주문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현지화를 지원한다. 다양한 국제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대학의 국제적 역량강화와 고등직업교육의 신한류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올해 새롭게 확보한 31억 원의 예산은 15개 전문대학 사업단에 각 2억 원씩 지원되고 사업관리운영비로 1억 원이 소요된다. 내년에는 5개 교가 추가돼 총 20개 사업단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문대학생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신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능력중심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전문대학생들의 취업 기회가 늘어나 2017년까지 전문대학 취업률 80% 이상, 국가 고용률 70% 달성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201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WEST 프로그램 연장이 합의됨에 따라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도 더욱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119억 7,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내용별로 보면,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에 11억2,000만원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에 40억3,300만원 △WEST(Work, English Study, Travel) 사업에 64억1,400만원 △예비교사 해외 진출에 4억700만원이다.



WEST 사업을 통해 미국에서 1년6개월간 체류했던 이창우 씨는 WEST를 한마디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표현한다. “미국에서 5개월간 어학연수와 1년간 워싱턴에 있는 스포츠마케팅회사에서 인턴십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턴십을 하던 중에 장기휴가를 얻어 1개월간 서부여행을 하기도 했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 씨는 세계 최대의 스포츠시장인 미국에서 선진스포츠문화를 보고 배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 Korea Social Sports라는 기업을 창업해 운영 중이다.

1년 5개월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어학연수와 인턴근무를 경험한 최슬호 씨는 “미국 현지인들과 어울리며 영어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인턴근무를 하면서 관심 분야의 실무를 배울 수 있었다.”고 전한다.

대학생들에게 해외 산업현장 실무경험 등 다양한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부의 지원정책이 앞으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 더욱 주목된다. 이로써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 시대가 성큼 다가오는 듯하다. ■

올해 865억 투자해 행복기숙사 설립… 17년까지 5만 명 지원

“주거 부담 내려놓고 대학공부 열심히 하세요”

대학 2학년생인 지승은 씨는 요즘 들뜬 기분을 감출 수 없다. 학교 인근에 짓고 있는 행복기숙사가 서서히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 서천이 고향인 지 씨는 대학입학과 동시에 서울로 올라와 결혼한 언니네 집에 머무르고 있다. 만만치 않은 등록금에 하숙비 부담까지 부모님께 의지할 수 없어서다. 하지만 방 두 칸짜리 언니네 신혼집에서 방 하나를 차지하며 사는 것도 여간 미안한 일이 아니다. 행복기숙사가 완공되면 자신도 ‘독립’ 할 수 있을지 조심스레 기대를 걸고 있다.

1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승찬 씨도 행복기숙사에 관심이 많다. 한 달에 수십만 원 하는 거주비용을 감당하기가 벅차 고시원 생활을 선택했지만, 생활의 불편은 차치하고라도 답답한 공간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 때마다 우울하다. 그는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행복기숙사가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가 저소득 가구 및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캠퍼스 내·외에 다양한 형태의 대학생 주거지원 방안의 하나로 건립 중인 제1호 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가 오는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홍제동 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는 교육부, 국토부, 기획재정부 및 서대문구청이 협업하여 국·공유지에 공공기금(국민주택기금, 사학진흥기금) 장기 저리 지원을 통해 건설하는 기숙사이다. 연면적 7,808m²(516명 수용규모), 총사업비 159억 원으로 건립재원은 교육부, 국토부가, 부지제공은 기획재정부, 서대문구청이 했다. 홍제동 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가 완공되면 입주 대학생들은 현재 사립 대 민자기숙사비(평균 32만 원)에 비해 월 13만 원이 저렴 한 월 19만 원 수준에서 생활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저조한 기숙사 수용율 및 대학가 주변의 비싼 원



룸·하숙비로 인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5만 명 이상 지원(17년 대학생 주거지원율 25%)을 목표로 대학생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대학생 기숙사 건립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17년까지 소요예산은 총 2조3천억 원 규모로 추정(행복주택 제외)된다.

기숙사 형태로는 공공기금(국민주택기금, 사학진흥기금), 민간자본, 대학재정, 민간기부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대학캠퍼스 부지에는 국립대 임대형 민자(BTL) 기숙사(민간자본), 사립대 공공기숙사(공공기금)·재정기숙사(대학재정)를 건립하고 국·공유지 등에는 대학생 연합기숙사(공공기금), 학생종합복지센터(민간기부금) 등을 공급하게 된다.

올해 교육부는 행복(공공)기숙사 사업에 647억9,800만 원, 행복(연합)기숙사 사업에 161억6,900만 원, 글로벌교류센터건립사업에 55억3,300만 원 등 행복기숙사지원사업으로 총 86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체육전담교사 배치·체육수업 확대… 학교체육 내실화 다진다

“함께 운동하자~, 체력도 쟁! 학업도 쟁!”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고 체·덕·지를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부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교육부는 ‘학교체육 활성화’의 첫 단추로 체육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하여, 수업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중·고교에는 체육 수업 시수를 확대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협동심, 배려 등을 경험함으로써 인성함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일반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를 활성화시키며, 나아가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토요스포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13년에는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3,000개 팀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4,000개 팀으로 늘리고,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수도 ’13년 1,780리그에서 올해 2,670리그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여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반시설도 조성한다. 체육을 기피하는 여학생들이 스포츠를 보고, 즐기는 쉬운 것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 관람 등을 지원하고, 남녀분리 체육수업 등을 통해 여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유도 한다. 또한 여학생을 위한 탈의실 등을 갖추는 한편, 학교스포츠클럽 종목도 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네트형 종목, 뉴스포츠, 댄스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선수 및 체육



에 재능과 흥미를 가진 학생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선수에게 적합한 교육으로 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운동선수로서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고교 체육중점학급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업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경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KBO는 업무협약을 통해 1학생 1스포츠 활동으로 추진 중인 학교스포츠클럽 야구 관련 종목(야구, 티볼)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400개교에 티볼 세트를 지원하였다. 또한 은퇴 선수 및 전직감독, 야구해설가 등이 재능기부를 통해 일일 스포츠클럽 강사로 나서, 학교를 방문해 연식야구를 가르치기도 했다. 그밖에도 일반 학생들이 참가하는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리그대회 야구경기가 열릴 때면,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하고 공정한 경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및 심판 등을 지원하였다.

교육부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은 1학생 1스포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 실현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더불어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분노와 우울함을 억제시키고 안정감, 행복감을 유발하고 자신감 및 집중력을 향상시켜 수업태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❷



모든 통학차량 전수 조사 및 신고 의무화 추진

“우리 아이 통학차량 안전 확인하세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이윤경(41) 씨는 며칠 전 가슴이 철렁하는 경험을 했다. 5, 7세 유아를 키우는 이 씨는 매일 아침 통학버스를 이용해 두 아이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고 있다. “아이들을 태운 통학버스가 늘 만원이에요. 마지막에 타는 우리 아이는 늘 보조석에 위험하게 타서 태우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차가 출발했고, 갑자기 차가 끼어 들어 급정거를 하면서 아이가 차 안에서 넘어진 거죠.”

다행히 부상이 크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었다. 불안한 마음에 이 씨는 유아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한 후 출발할 것, 적정 인원을 대울 것 등을 유치원에 건의했다고 한다. 이 씨는 “유치원생 등하교시에는



유치원 차량으로, 오후에는 어학원 차량으로 이용되는데, 안전한 차량인지, 운전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한다.

지난해 초 어린이들이 통학차량에 의한 사고가 잦아지자, 법정부차원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5.3~7.31, 3개월간 어린이 통학차량 6만여 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학교, 유치원, 학원 외에도 복지부 및 문체부와 협력하여 어린이집, 체육시설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마지막날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그에 앞서 국토부는 교육용 유상운송 차량 허가범위를 완화하여 어린이교육시설의 부담을 낮췄다. 즉 다수의 통학차량이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서 운행되는 26인승 미만인 점을 감안하여 9인승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였다. 그밖에도 정부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통학차량 안전강화 캠페인, 집중단속 등을 운영하여 일반 국민들의 통학차량에 대한 보호인식을 높이고 있으며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기준도 강화하여 후방감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차량후진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학차량 승하차 보호기 설치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서 관내 학원, 체육시설 등이 운행하는 통학차량의 신고여부, 자동차 안전기준 구비, 안전교육 이수 등의 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



ICT 활용으로 농산어촌의 지리적, 문화적 어려움 극복

스마트 교육으로 배움의 경계 허문다

경남 통영에 위치한 원평초 학생들은 방과 후에 태블릿 PC를 통해 만나는 또 다른 세상에서 꿈과 끼를 키운다.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농산어촌 ICT 지원 사업을 통해 태블릿PC 16대를 지원받은 원평초는 3~4학년 14명의 학생들에게 주2회 4시간씩 스마트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리적, 문화적 환경은 열악한 편이지만, 방과 후에 진행되는 ‘스마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영어, 수학, 과학, 역사 등 관심분야를 스스로 학습하고,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체험 기회를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EBS와 영어 관련 앱을 이용해 각자의 수준에 맞는 영어 동화를 보며 일주일에 2시간씩 영어를 공부한다. 안서환 교사는 “영어 외에도 진로, 역사, 과학 등 주제를 정해 주2회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독도를 주제로 수업을 할 때는 ‘독도의 진실’ 등 주제별로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서 학습에 흥미를 불어넣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원평초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가상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부산 아쿠아리움, LG 싸이언스홀 등 현장체험과 연계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4명의 스마트 멘토 교사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을 돋고 올바른 스마트 기기 사용 습관을 기르는 역할도 맡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태블릿PC를 이용해 학생들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UCC를 제작하고, 통영의 문화·예술 자료를 모아 문화재 탐구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 및 문예체험 확대 방안’을 수립하고 농산어촌 초·중학교 300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스마트 기기 및 무선 인터넷망 보급, 스마트 멘토링 등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그 성과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여건을 극복하고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농산어촌 ICT 지원을 2,000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 기기, 무선 인터넷망, 스마트 멘토링과 함께 다양한 ICT 콘텐츠 보급이 추진된다. 자기주도 수학 학습 콘텐츠, 학생 과학연구 수행물, 오케스트라 동영상, 체력 측정 앱, 고구려 벽화 동영상 등 다양한 과목의 온라인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실제 직업현장을 원격으로 연결하는 ‘원격 진로 멘토링’을 통해 직업현장을 보다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2015년까지 농산어촌 전체 초·중학교로 ICT 지원을 확대하여, 농산어촌 학생들도 한 명, 한 명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❷



대안교육 기회 확대… 학업중단 학생 학업복귀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다시 꿈에 도전한다!’

한창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나이 17세. 박지연(가명) 양은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생활했으나 어머니가 정신분열증세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학교를 그만뒀다. 아버지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피아니스트의 꿈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서울의 한 청소년쉼터에서 어렵게 생활하던 박 양은 지난해 11월, 교육부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평소 간질 질환을 앓았던 박 양은 고대 구로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었고, 이화여대에서 KB음악대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피아니스트의 꿈도 다시 꿀 수 있게 됐다. 박 양의 소식을 접한 이화여대 사범대 최경희 학장은 소정의 생활비를 후원하는 등 박 양이 꿈에 한발 다가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

박 양처럼 학교를 그만 둔 학생이 2012년 한 해 전국적으로 6만 8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 약 2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013). 교육부는 이처럼 심각한 학업중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단계적으로 지원·관리하는 한편, 학업중단 학생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학업중단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담임교사의 학교생활 관찰 등을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교내·외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일정 기간 이유 없이 결석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시·도교육청에 상황을 보고하는 등 사후관리도 추진된다. 그 동안 시범 운영했던 ‘학업중단 숙려제(학업 중단 위기의 학생에게 학교를 그만두기 전 숙려기간을 주는 제도)’는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학교에서 위기학생에게 심리·진로



상담, 직업 체험, 예체능 체험, 대안 교육 등 다양한 숙려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공교육 체제 안에서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대안교육이 활성화 된다.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완전히 자율화한 새로운 대안학교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대안교실(1,296교), 위탁교육(250 기관 9,278명)을 확대하고, 오는 ’16년까지 대안학교 14 개교를 신설·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학업중단 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하는데 필요한 지원도 강화된다. 학업중단 전·후로 취업·직업교육·학업복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검정고시 무료과정 운영, 방송중·고 활성화 등 다양한 학업 복귀 지원이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계획이다. ❷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 경쟁력 갖춘 국내외 인재 기른다

국립국제교육원(원장 이병현)은 교육부 산하의 글로벌 교육 서비스 전담 기관이다. 1962년 재외동포 한글 교육을 위해 문을 연 뒤 사업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 우리나라 최고의 국제교육 전문 기관으로 성장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GKS(Global Korea Scholarship)를 꼽을 수 있다. GKS는 우리나라 정부가 세계 교육발전과 공동번영에 기여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장학사업이다. 교육부가 주관하고 국립국제교육원이 지원·관리를 맡고 있다.

GKS의 핵심은 해외 우수 인재에게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이다. 1967년 시작돼 현재까지 4,800여 명의 외국인 학생이 혜택을 받았다. 현재는 세계 127개국 2,000여 명의 학생이 국내 70여 개 대학에서 수학 중이다. GKS는 해외인재들, 무엇보다 개발도상국 청년들을 해당 국가 발전을 견인할 핵심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왕성한 활동을 펼칠 즈음,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동반자로 자리 매김하는데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현 원장은 “앞으로 국제교육 지원방향은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위상에 맞게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확대 추세에 따라 교육 분야 ODA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립국제교육원은 지난해 ‘개발도상국 기초교육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등 2개 대륙, 4개 국가에 교사를 파견했다. 개발도상국에 학교 건축 등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01

가르칠 교사 등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유학 ‘가던’ 나라에서 유학 ‘오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유학 가던 나라’에서 ‘유학 오는 나라’로 변모하게 된 데는 국제교육원의 역할이 컸다. 교육부는 우리나라 대학과 교육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1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 계획을 수립했다. 2004년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시대를 대비한 외국인 장학생 유치사업인 ‘Study Korea Project’를 지난 10년간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해 꾸준히 추진해온 것.

‘Study Korea Project’의 목표는 우수한 외국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외 인재를 기르는데 있다. 나아가 세계와의 인적 교류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한편, 한국과 한국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



02



03

기 위한 것이다.

사업 시행 초기인 2005년 외국인 유학생수는 2만 명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9만 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국립국제교육원이 여러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학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대학들이 보다 많은 양질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립국제교육원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굳건히 하기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은 해마다 대학들과 함께 ‘한국 유학 박람회’를 열고 있다. 이것은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들에게 직접 대학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박람회는 해외 주요국가에서 매년 10~15회씩 개최돼 현재까지 전 세계 102개 국가 132개 도시에서 140여 회에 걸쳐 진행돼 왔다. 박람회에 참여하는 대학에는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정

01. EPIC(English Program In Korea)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모습

02. 경기도 분당의 국립국제교육원 신사옥조감도. 내년 하반기 이전을 앞두고 국립국제 교육원은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03. 한류열풍에 이어 한국어열풍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열중인 외국인들

부 해외기관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내실 있는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립국제교육원은 대학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우수 글로벌 인재 양성과 교육한류 조성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한류열풍 이어 한국어열풍, 한국교육열풍…

이밖에도 재외동포 교육, 한국어교육 지원, 국제교육 교류 등과 관련된 30여 개의 사업이 시행 중이다. 이 가운데 재외동포 교육을 위해서는 재외동포 및 자녀 모국 초청연수, 재외국민용 교과서 및 현지맞춤형 교재 개발·보급, 재외한국학교 교사 초청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어 토익이라 할 수 있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도 이곳에서 펼치는 사업이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들의 한국어 사용능력을 평가하여 국내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시험이다. 전 세계 63개 국가, 197개 지역에서 연 4회 시행되고 있으며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지난해까지 무려 16만7,000여 명이 응시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최대 연 5회까지 시험 횟수를 늘리고 전 세계 67개 국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미 취업연수(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부해외인턴사업도 활발하다. 연간 2,500여 명의 대학생과 청년층이 전 세계 90여 개 국가의 산업현장으로 파견돼 해외연수와 해외취업의 기회를 제공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토익·토플과 같은 해외 영어시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민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영어능력시험(NEAT) 1급 개발·시행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교육’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세계를 향한 국립국제교육원의 혁신과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❸

이병현 국립국제교육원장

“교육은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소프트파워의 핵심”

“한국 교육은 전 세계의 부러움과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소프트파워의 핵심이다. 케이팝(K-POP)처럼 케이에듀(K-EDU)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국제교육 교류분야에서도 한국이 대표국가가 될 수 있도록 국립국제교육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

지난 12월 취임한 이병현 원장은 신임원장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국제교육원의 업무를 손금처럼 들여다보고 있었다. 30여 년을 외교관으로 일하며 국제사회를 속속들이 체험한 그는 한국 교육을 보는 시각과 분석이 넓고 치밀하다. 1991년 우리나라가 UN에 첫 가입한 후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고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막중한 존재감을 확립하기까지, 이병현 원장의 외교활동은 튼튼한 주춧돌이 됐다. 그는 우리나라가 UN에 안착할 수 있게 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부처 간 고위공직자 교류정책에 따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을 지내면서 교육 정책에 대한 실무경험을 쌓은 것도 ‘교육적 감각’을 키우는 밑거름이 됐다. 국제교육정보화국장으로 일할 당시 Study Korea Project를 직접 설계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이 원장은 교육이야말로 중요한 외교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교육분야 ODA에 정성 쏟겠다

“우리나라는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세계 최초의 국가입니다. 이처럼 폭발적인 성장은 무엇보다 교육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난 50년간 재외동포 한글교육기관으로 출발하여 명실상부 ‘교육한류의 중추기관’이자 ‘국제교육교류의 총괄 핵심 기관’으로 성장한 국립국제교육원이 한국만의 소프트파워인 교육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세계 수준에 부합하는 국제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1

01. 교육이야말로 중요한 외교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이병현 원장은 교육 분야 ODA를 수행하는 것이 향후 국립국제교육원의 핵심 역할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02. 2014글로벌 취업창업대전 개막식에 참가한 이병현 원장이 주한오스트리아 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흐름 속에서 한국을 보고, 한국의 변화 속에서 세계의 대응을 생각하는 이병현 원장은 국제교육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외교적’ 노하우를 담는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수록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교육 분야에서도 ODA를 통한 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세계는 우리나라의 수학·과학·IT교육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나라에 물질적 지원을 보내는 것 못지않게 교육적 ODA를 확대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교육 분야 ODA를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국립국제교육원의 핵심 역할이 될 것으로 그는 내다본다.

이병현 원장은 국립국제교육원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새로운 설계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리원이 현재 추진하는 재외동포교육 및 국제교육교류 사업이 30여 개에 이릅니다. 모두 다 우리나라의 국제 교육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지만 이중에는 그동안 운영 개선이 없이 추진되어 온 사업도 있고 새로운 국제교육교류 추세에 맞추어 변경하거나 새롭게 추진해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해 수요자가 원하는 글로벌기준에 맞는 국제교육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특히 유학생 관련 정책은 외국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우리 교육에 대해 자신감을 회복하자

이 원장은 국립국제교육원의 변화를 꾀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의 ‘주인의식’을 강조하는 편이다. 오랜 세월 UN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이다. 몇몇 강대국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세계 각국이 화해와 협력으로 운영해가는 조직이 UN이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하게 된다. 따라서 업무 추진에 있어 조직구성원의 역량이 개별적으로 발휘되는 것보다는 조직의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에 따라 모든 조직원의 노력과 아이디어가 조화롭게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통과 배려 중심의 팀워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어느 한 두 사람의 우수성에 기대지 않고 평범한



02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조화와 협력에 더 큰 가치를 둔다. 실제로 이병현 원장은 노르웨이한국대사로 일할 때, 비선호 근무 지역이었던 곳에서 직원들의 잠재력과 동기를 십분 끌어내어 기관평가 최우수 등급을 거머쥐기도 했다.

“2012년 기준 노르웨이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9만9664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창의교육, 엘리트교육, 직업교육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는 인근 국가인 핀란드나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고 이에 대해 노르웨이도 많은 고민을 안고 있지요. 다시 말해 ‘교육’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 고민거리라는 점입니다.”

이병현 원장은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 논란과 비판이 많지만, 분명한 사실은 ‘공이 훨씬 많다’는 점이라고 강조한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교육에 대해 우리 스스로 자신감을 회복하자는 주문이기도 하다.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시대에서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글로벌 인재를 유풀하는 한편, 교육 혁신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치열해지는 세계 각국의 글로벌 교육 투자확대와 인재유치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 간 교육교류 활성화에 더욱 힘을 쓸겠습니다. 또한 국가적 수요에 따른 국내외 글로벌 창조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 다양한 국가와 글로벌 인재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❷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박물관

영화를 보기만 한다고?

영화를 느껴봐!



영화, 애니메이션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영화박물관에 눈길을 돌려보자.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한국영화박물관은 한국영화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영화에 흥미를 일으키는 양질의 영화체험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기특하게도 전시와 체험이 모두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영상관련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이 분야 직업에 관심있는 청소년이라면 서두르는 게 좋다.

한국영화사를 엿보다

먼저, 한국영화박물관은 전시공간과 체험공간으로 구분된다. 상설전시 코너에서는 ‘한국영화의 시간여행’과 ‘여배우열전’이 전시 중이다. 체험공간에서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애니메이션 존’, ‘영화의 원리 존’, ‘무성영화극장’이 있다.

‘한국영화의 시간여행’에서는 1903년에서 현재까지 한국영화사를 최초의 사건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다. 제1기(1903~1945)는 최초의 연쇄극 <의리적 구토>에서 출발

하여 45년 해방 이전까지, 제2기(1945~1972)는 해방 이후부터 60년대까지의 한국영화사를, 제3기(1972~1986)는 검열과 국책영화로 시작하여 80년대까지, 제4기(1987~현재)는 코리언 뉴 웨이브에서 영화운동, 한국영화 르네상스를 거쳐 최근의 화제작으로 마무리된다. ‘여배우열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 ‘문예봉’에서 월드스타 ‘전도연’까지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12명의 여배우를 통해 그 시대의 사회문화사를 짚어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종이와 연필로 만든 애니메이션-Cell에서 2D애니메이션까지」가 기획 전시중이며, 3월말까지 진행된다. 가장 폭넓게 사용했던 셀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는 한편, 실제 작품 속의 원화와 사진을 전시하여 2D 애니메이션까지 어떤 경로를 거쳐 발전해 왔는지 보여준다.



01. 한국영화박물관 내부 전경
02. 03. 상설 운영 중인 영화체험 프로그램 '영화야, 놀자'
04. '어린이영화아카데미'의 하이라이트, 단편영화를 제작 중인 학생들



03



04

'애니메이션 존'은 애니메이션의 제작 원리부터 한국 애니메이션의 역사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으며, 직접 애니메이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애니메이션을 직접 그리고 전시할 수 있는 '그림아, 놀자!' 코너와 애니메이션에 사운드를 입혀보는 '왁자지껄 놀이터'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2층에 마련된 '영화의 원리 존'은 필름의 종류, 편집된 35mm 필름이 영사기에 장착되어 스크린에 영사되는 과정, 손상된 영화필름의 복원과정, 영화 「밀양」의 제작과정, 특수효과 제작 과정 등을 설명해 준다. 한국영화박물관의 하이라이트는 '무성영화극장'이다. 이곳은 30년대 대표적인 극장 원각사를 재현한 공간으로 당시 극장에서 상영된 무성영화들이 복각된 변사의 뉴음과 함께 편집되어 상영되고 있다.

영화아카데미, 토요문화학교 등 영화체험 다양

한편, 한국영화박물관은 양질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호응이 높은 편이다. 상설 운영 중인 '영화야, 놀자' 프로그램은 애니메이션 '늑대와 달님'을 관람하고 결말 맞춰보기, 영화의 원리를 배워보는 '광학 장난감(소마트로프, 페나키스토스코프) 만들기', 무성영화 장면을 보고 직접 대사를 넣어 변사역할을 해보는 '변사놀이' 등이 준비되어 있어, 참가들에게 영화에 대한 흥미를 불어넣는다. 15명 이상 단체관람객은 사전예약(www.koreafilm.or.kr/museum)을 하면, 전시해설과 함께 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영화박물관은 2008년 개관 이래 지속적으로 '어린이영화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7~8월경 진행할 예정이다. '어린이영화아카데미'는 초등 4~6학년 대상의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으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일에서부터 각자 연출, 촬영, 배

우 등의 역을 맡아 10분 내외의 단편영화를 제작한다. 아주 영 큐레이터는 "미디어교육은 다양한 장르와 목적을 가진 영상물을 비교 분석하여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영상 매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비판적인 수용자를 길러내는 것 이 목표"라며 "놀이를 통한 미디어감각을 깨우는 과정을 통해 영상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고, 참가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키운다."고 말한다.

그밖에도 영화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이라면, 토요문화학교 '시시콜콜 영화박물관 점령기'에 참여해 보자. 참가들은 12주 동안, 자신과 영화 속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어 토론·협업하며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즉, 각자 선정한 한국영화를 감상하며 영화 속 인물, 시대, 의상, 소품, 촬영 기법 등에 관해 토론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느낀 것을 영화, 화보, 퍼포먼스, 인터뷰, 강연 등 자유로운 형태의 창작물로 만들게 된다. 또 토요문화학교에서 초기 애니메이션 기법의 영화 제작 원리, 16미리 영사기 등 영화 기자재 체험, 시트콤 시나리오 작성 등을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영상관련 다양한 직업에 대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주말 오후 6시)까지. 문의 02-3153-2031 ☎

날마다 성장과 행복을 기록하는 ‘학급일기’



나승빈 교사

‘불행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주자.’

교사로서의 나의 다짐은 소박하게 출발했다. 교직에 첫발을 내딛은 후 6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는데, 그 때 만난 아이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의 ‘생채기’가 고스란히 담긴 그 말 때문에 매해 담임을 맡을 때마다 ‘행복한 학급,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었다.

기록하면서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기록하자

필자는 매일 블로그에 ‘학급일기’를 쓰며 학교생활을 기록하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생활에서 의미를 찾고, 행복을 느끼는 과정을 기록에 남기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4년 전 시작했다. 필자의 ‘학급일기’에는 그날의 즐거웠던 일도 기록되어 있지만, 교사로서의 실패담도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다. 선생님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실망하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순간 교사와 아이들의 성장은 멈추게 된다.

블로그에는 1년간의 학교생활을 최대한 기록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날의 중요한 활동에서부터, 공부한 내용, 그 날에 있었던 아이들과의 에피소드 등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아이의 입과 기록물, 교사의 연락을 통해서 아는 것이 전부다. 학부모와 학교·담임교사 간에 거리감이 멀면,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협력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학급일기’의 첫 시작은 필자 자신의 계획과 반성, 그리고 의미있는 교육활동을 기록에 남기기 위한 것이었지만 차츰 학생과 학부모와의 소통 창구가 되었다. 학부모들은 학교생활에 대한 부족한 정보를 블로그를 통해 접하고 ‘학급일기’를 통해서 자녀의 학교생활을 지켜보았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학부모의 신뢰를 얻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협력자로서 학급운영과 교육활동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되었다. 때로는 활동적인 아이들 중심으로 학급이 운영된다는 학부모의 질책도 있었지만, 학급운영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계기가 되곤 했다.

모두가 행복한 교실 만들기 ‘교실평화 프로젝트’

선생님과 제자로 인연을 맺은 우리반 28명의 아이들 중에는 1/3가량의 아이들이 장애, ADHD, 분노조절 및 정서장애, 기초학습 부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사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었다. 그래



01. 서툰 솜씨지만 직접 요리를 만들며 즐거워하는 아이들
02. 아이들은 매일 아침 눈인사, 화이파이브 등으로 친구들과 인사를 나눈다.
03. 나승빈 교사가 운영 중인 블로그



서 학기초 ‘함께 있어 행복한 우리’라는 주제로 교사, 학생, 학부모가 행복한 1년을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았다.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급 풍토를 만드는데도 힘썼다.

진정한 의미에서 배움은 안전이 보장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도전한 것이 ‘교실평화 프로젝트’였다. 학급에서 일어난 일을 학급 공동체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교실평화를 위한 5가지 규칙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고, 그 과정을 법무부에 제출하여 학급 헌법으로 인증을 받았다. 특히 아이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입장 바꾸어 보기’ 활동(가령, 장난과 괴롭힘의 차이라든가, 남

학생과 여학생의 차이 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학교폭력예방 UCC만들기도 진행하였다. 바른 언어사용의 중요성에 대해 영상을 보고 함께 토론하였으며, 미술시간에 학교폭력예방 피켓을 만들고, 아침 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캠페인도 벌였다.

우리 반 아이들은 매일 아침 ‘하루 열기’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닫기’를 통해 그날의 하루를 반성하고 마감한다. 아침은 ‘환영 나눔’으로 시작된다. 아이들에게 학교에 온 것 자체를 환영한다는 것이다. 학급 모든 구성원들과 눈인사, 하이파이브 등 매일 인사법을 달리하여 환영한다. 그 다음은 자신의 기분 점수를 이야기한다. 1~5점 척도로 자신의 기분을 점수로 표현한다. 아이들은 기분 점수가 낮은 친구들을 기억해서 서로 조심하는 모습을 보인다. 게다가 기분 점수가 낮은 친구가 왜 기분이 좋지 않은지 서로 살피고 관심을 갖고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한다.

하루 일과를 마칠 즈음에는 ‘하루 닫기’ 활동을 진행한다. 하

03 행복한 아이 행복한 선생님

http://blog.naver.com/kingofnsb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하는 습관이 생겼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반 아이들과 교사인 나는 많이 성장하였고 행복하였다. ‘함께 있어 행복한 우리’ 정말 함께여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루동안 친구나 선생님께 잘못한 일은 사과를 하고, 칭찬거리가 있을 때는 친구들 앞에서 칭찬을 하는 시간이다. 학교에서의 일과를 함께 반성하고 칭찬을 공유하려는 시도였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던 아이들이 지금은 친구의 장점을 발견하려고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기초 지각을 자주하던 민수(가명)는 학교생활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친구들이 민수에게 ‘학교에 온 것만으로도 환영한다.’는 말을 건넸다. 지각을 하든, 결석을 하든 친구들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자신의 학교생활에 대해 친구들이 관심을 쏟으면서 민수의 학교생활은 즐거워졌다.

누구하나 소외되는 학생 없도록!

학급을 운영할 때, 반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소속감을 갖고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일반적으로 학급티를 맞추기도 하지만, 우리반은 함께 만드는 것을 선택했다. 학급일기에도 그날의 일을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다.

‘평소 소극적이던 아이들이 티를 만들면서 자기표현을 정말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항상 빠지려고 하고, 자주 울던 지영(가명)이가 가장 적극적으로 교실을 누비면서 티를 만들었다. 다른 친구의 작품도 보러가고 말도 걸었다. 정말 오늘 하루는 지영이에게 최고의 하루였다. 전체적인 도안은 아이들과 함께 구상하여 통일감을 주고, 색은 자유롭게 써서 개성을 표현했다. 이번주 일요일에는 ‘독도 페스티벌’, 다음 주에는 ‘현장 체험학습’과 ‘오카리나 대합주’가 있는데 우리반이 함께 입을 옷이 생겼다.’

잔디인형 만들기도 진행했다. 아이들에게 잔디인형을 키우는 경험을 통해서 특별한 체험을 경험하게 하고 싶었다. 잔디인형을 만드는 아이들의 표정은 흥분으로 가득했으며, 완성한 후에 인형에 이름을 지어주고 꾸준히 관리하며 정성껏 돌보았다.

학기말에는 우리반만의 특별한 축제의 시간을 가졌다. 서툴지만 아이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눠먹고 장기자랑도 펼쳤다. 아이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아이들은 조별로 떡볶이, 떡라면, 샌드위치, 스파게티 등 아무 진 손길로 음식을 만들어냈다. 한창 음식 만들기가 진행되는 중에 다른 학년 선생님들이 대거 참여하여 심사도 맡아주었다. 모둠별로 어려운 과제를 해냈다는 자부심과 우리반만의 특별한 활동에 아이들도 필자에게도 즐거운 추



04



05



06

04. 05. 즐거운 놀이와 학습은 아이들을 춤추게 한다.
06. 나 교사는 교실평화 프로젝트를 넘어서 아이들과 함께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07. 아이들의 손길로 쑥쑥 자라는 희망잔디 인형

억이었다. 특히 블로그에 과정들을 상세하게 올렸더니 학부모의 반응도 뜨거웠다. 그리고 어리게만 느껴졌던 아이들의 성장을 경험한 순간이었다. 학기 초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습관처럼 하던 아이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을 배려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사랑을 먹고 긍정적으로 자라는 아이들

또한, 우리반은 ‘하루 미션’을 진행한다. 누구나 달성할 수 있는 ‘기본 미션’과 도전할 수 있는 ‘도전 미션’을 운영하는데, 날마다 성공 경험을 통해서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있다. 수업에 소극적이거나,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있으면, 자연스레 그날의 미션은 ‘발표 2번 이상 하기’, ‘친구 놀리지 않기’ 등으로 정한다. ‘선생님 몰래 돋기’를 도전 미션으로 주는 날이면, 그날 하루는 필자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 미소가 절로 난다.

하루가 모여,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듯이 날마다 미션을 달성한 경험들이 쌓여서 효과를 발휘한다. 때문에 아이들에게 중점적으로 지도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미션으로 제시하면, 교육효과가 배가된다.

그리고 <개인나무-학급나무-학급온도계>를 통해서 한 명의 긍정적인 행동이 학급 전체에 기여된다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보통 자기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이의 태도를 기록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자신의 잘못된 태도나 습관을 고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록물은 주기적으로 아이들에게도 보여주었고, 학부모에게도 공개했다. 가정과 학교에서 함께 지도함으로써 아이들의 태도나 습관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 교사로서 행복한 일이 참 많았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는 것을 너무 즐거워해요.”라는 학부모의 말이나, 금요일 학교가 끝나면 “선생님 주말에도 학교에 나오면 안 돼요?”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말에서 희망을 찾았다. 이 아이들을 볼 수 없는 방학이 그리 기쁘지만은 않다.

매일 기록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하는 습관이 생겼다. 꼭 기록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고 그들의 생각을 공감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반 아이들과 교사인 나는 많이 성장하였고 행복하였다. ‘함께 있어 행복한 우리’ 정말 함께여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



07

차재경 환경영향평가원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이끄는 중재자”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양편의 조화를 이루는 중재자. 환경영향평가원은 상충되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아우르며 친환경적인 개발을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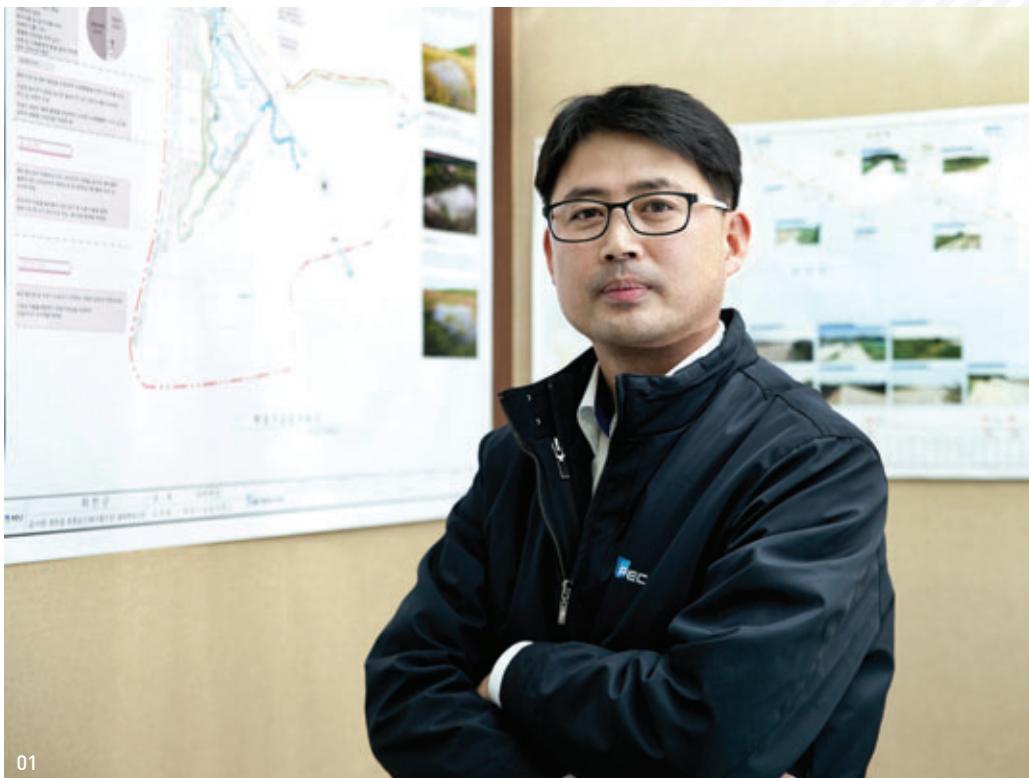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현재가 미래의 자산을 빌려 쓰고 있고 우리는 미래의 후손들이 그 자산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발전하다는 개념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론자들과 경제성장론자들 간의 의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요.”

18년 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해 온 차재경(44) (주)평화엔지니어링 상무는 스스로를 ‘중재자’라 치칭했다.

‘친환경적 개발’을 고민하는 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광범위하다. 개발 지역의 자연환경부터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을 모두 포함하여 개발이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고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게 된다.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도로와 항만의 건설 등 총 17개 분야가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나 평가 후에도 공사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뿐만 아니라 정책계획이나 개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합니다. 어느 지역이 개발에 용이한지, 또 어떤 지역을 어떻게 보전하면 좋을지를 현장답사 등을 통해 조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평가서로 만들고 사업계획에 반영하지요.”



01

01. 차 상무는 개발이 가속화될수록 개발과 보전이라는 두 축을 중재할 환경영향평가원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한다.

차 상무는 대학에서 생물학(석사)을 전공하고 설계 및 감리를 하는 엔지니어링사에 입사했다. 개발이 불가피 하다면 친환경적 개발에 역점을 두는 업무라는 점이 매력으로 다가왔다. 입사 후 처음으로 맡은 업무는 송전선로 건설. 인근에 마을이 위치해 “농부들이 곡괭이를 들고 나올 정도”로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 극명하게 대립되는 두 의견 사이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평가 보고서는 의견차를 좁히는 데 큰 역할을 차지했다.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다 보면 ‘아! 이 지역은 보전이 필요

할 것 같은데….’라고 판단되는 지역이 눈에 보입니다. 그럼 평가를 진행하면서 사업자, 지역주민, 환경단체들과 회의 등을 통해 의사소통을 나누다 보면 서로 간의 입장은 확인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되죠. 그런 과정을 통해 그 지역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최소화하게 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지요.”

그래서 천성산 터널공사나 밀양송전탑 건설에서 빚어진 갈등은 그의 입장에서 더욱 더 안타까운 일이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치열한 갈등으로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는 개발이 가속화될수록 이러한 갈등을 중재할 환경영향평가원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한다.

환경에 대한 투철한 인식과 애정 필요

지리산 케이블카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했을 때는 누구보다 큰 어려움을 겪었다. 지리산 온천지구에서 노고단까지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두고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반대론자들은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가 웬 말”이라는 반면, 찬성론자는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개선과 케이블카 설치 후 도로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를 통제하는 게 자연훼손을 덜 한다.”는 입장이었다. 사업은 중단됐지만,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논란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환경보호론자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에 대한 면죄부라는 시각이 있어요. 개발론자 입장에서는 그 반대되는 시각이 있죠. 그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시간과 비용만 추가로 들어간다는 시각이 강하죠. 사업 초기 단계부터 보고서를 만드는 데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하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4번에 걸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중재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다고 봐야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신뢰성’이 중요하다. 개발을 안 하는 것이 최선도 아니고, 마구 개발해도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으로 평가를 신중하고 꼼꼼히 진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종사자 대부분이 관련 학위와 기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으며 추가로 석·박사 학위와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기술사 자격증을 일찌감치 취득한 차 상무는 생물학뿐 아니라 대기, 수질, 폐기물,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양편의 조화를 이루는 중재자. 환경영향평가원은 상충되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아우르며 친환경적인 개발을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소음진동 등 환경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특히나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투철한 인식과 애정이 필요하다. 오염방지 및 극복에 관심이 있어야 소명의식을 갖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 여기에 자연환경에 대한 과학적 탐구심과 열정, 실험이나 검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 및 분석능력 등을 키워두면 도움이 된다.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로 직업 전망은 밝은 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평가분야에서 일정 경력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❶

환경영향평가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환경학, 환경공학을 대학에서 전공한다. 하지만 환경은 여러 학문이 복합된 융합학문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생물학, 해양학, 지질학, 토목공학 등 다양한 관련 전공자들도 진출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환경 분야 기사를 취득한 후 기술사를 취득하면 유리하다. 분야는 수질, 소음진동, 대기, 폐기물, 토양, 자연생태 복원, 생물 분류 등 다양하다. 그 밖에도 관련 학과의 학위(석·박사)가 있으면 유리하며,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외국어 능력(영어)도 중요해졌다. 도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캐드나 포토샵 등 컴퓨터 활용 능력도 갖춰두면 좋다.

연봉은 4년제 대졸 초봉의 경우 3,300만 원 정도. 개인의 능력과 경력, 자격증 취득에 따라 억대 연봉도 바라볼 수 있다. 진출 분야는 환경영향평가업체에서 주로 근무 하나, 정부기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찰평가연구원 등 정부산하 기관, 환경컨설팅 기관, 각종 교육기관 및 기업체의 환경관리자 등으로 다양하다.

집단상담으로 풀어가는 진로지도

집단진로상담이란 한 사람의 상담자(교사)가 동시에 여러 명의 내담자(학생)들로 구성된 집단을 지도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진로 프로그램이다. 개인이 자기를 이해하고 주위 환경과 직업세계를 인식하여 적절한 진로를 탐색·계획·결정하려는 태도와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집단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으며, 집단 구성원들과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진로상담 시 ‘집단’이 매력적인 이유

그럼 집단진로상담이 개인진로상담에 비해 가지는 장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시간 및 에너지 활용의 효율성을 들 수 있다. 교사가 개인적으로 진로상담을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는 학생 수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일반 심리문제와 달리 진로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당면하는 문제로서, 청소년의 경우 진로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많은 학생들을 일시에 다루는 집단 활동이나 집단상담은 효율성 면에 있어 진로지도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손으로 벽돌을 운반했던 벽돌공장에 지게차를 도입하는 것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다.

둘째, 집단원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은 개인상담에 비해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개인상담은 내향적인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교사와의 일대일 관계에서 오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을 덜어준다는 이점도 있다.

셋째, 또래 상담의 효과 및 관찰을 통한 간접 체험의 효과가 있다. 집단상담은 연령과 전문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교사와의 관계만 제공되는 개인상담에 비해 연령과 경험에 유사한 또래들이 상담자 역할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더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상담에 직접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에게도 또래 관찰을 통한 간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관찰만으로도 적지 않은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다.

넷째, 다양한 진로정보 교환 및 객관적 자기 이해의 장이 될 수 있다. 상담과정 중에 여러 참여자들이 자신의 관심 직업에 대한 다양한 진로정보를 제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양한 진로정보에 노출되게 된다. 또한 집단원들 간의 상호 피드백을 통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기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집단상담 효과를 높이는 준비 전략

그러나 집단진로상담은 앞서 제시한 장점과 함께 단점 및 개인상담에 비해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도 있으므로 이것들을 알고 사전에 문제점을 예방하거나 필요한 것들을 철저히 준비할 때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첫째, 특정 개인의 문제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한정된 시간에 집단원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

도록 집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학생만의 진로문제에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집단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집단원 스크린을 통해 특정한 진로문제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집단보다는 개인상담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고, 만약 집단 중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개인적인 문제를 너무 깊게 그리고 많은 시간 다루기보다는 개인상담을 별도로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둘째, 집단 분위기 형성을 위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집단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단 분위기 형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집단 진로상담에 참가하는 학생들 간의 친분과 친밀도에는 제각각 차이가 있지만 집단 형성 초기부터 집단상담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유지해나가는 것이 집단상담 운영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집단 분위기 형성의 하위 요소로는 철저한 비밀보장(집단에서 일어나는 일을 집단 밖에서 절대 이야기하지 않기), 안전한 분위기 조성(자기공개와 표현을 해도 비난하지 않기),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유도(집단 진로상담의 목표와 활동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등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집단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집단원 간의 상호 약속을 통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셋째, 집단상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집단원들 간의 유대감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유대감 형성을 위해서는 이름 대신 미래의 희망 직업을 나타내는 별칭을 지어 자기소개를 대신하기, 기대 공유하기를 함으로써 집단상담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등의 나눔을 통해 집단원들 간에 상담의 목표를 확인하고 조정/공유하는 기회 제공하기, 감정 나누기를 통해 집단상담에 참여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불안/염려/불확실한 느낌 등을 표현하여 해소하는 과정을 거치는 방법 등이 있다.

집단진로상담의 주제 정하기

집단진로상담의 주제는 크게 적성/흥미/가치관과 같은 자신의 진로 심리특성 이해하기, 직업/학과/상급학교 등에 대해 폭넓은 진로정보 탐색하기, 수많은 직업들 중에서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합리적 의사결정 방법 익히기 등이 있다. 구조화된 집단진로상담 프로그램으로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CDP(Career Development Program)의 약자이며 한국고용정보원이 개발했다. 사이버진로교육센터 사이트 (<http://cyber-edu.keis.or.kr>)의 자료마당 메뉴에 텁재되어 있으며. 교사용 매뉴얼, 학생용 워크북, 수업용 PPT가 모두 제공된다. 초등학생용 CDP-E, 중학생용 CDP-M, 고등학생용 CDP-H가 있다. 「내 꿈은 내가 만든다」(삼성사회정신연구소에서 개발했으며, 교육과학사에서 단행본으로 펴냈다. 진로와 관련한 동영상 제공 및 학생들의 흥미를 돋울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이 많이 제시되어 있다), 「우리반 진로코칭」(필자가 진로지도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교육출판사를 통해 2012년에 펴냈다. 34차시에 걸친 프로그램으로서 진로의 핵심 요소 외에 창업, 진로장벽, 학습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등이 있다.



사이버진로교육센터 홈페이지

일반 심리문제와 달리 진로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당면하는 문제로서, 청소년의 경우 진로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많은 학생들을 일시에 다루는 집단 활동이나 집단상담은 효율성 면에 있어 진로지도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손으로 벽돌을 운반했던 벽돌공장에 지게차를 도입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상담할 때 유념해야 할 세 가지

끝으로 학교에서 집단진로상담을 기획하고 운영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대상별로 학생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 또는 발달단계에 적합한 주제를 선택할 때 더욱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중학교 단계에서는 고등학교에 비해 폭넓은 진로탐색이 더 필요한 시기이므로 진로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중학교 3학년에서는 고등학교 선택을,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문/이과 선택을,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전공 및 대학 선택을 주제로 삼는다면 학생들의 참여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다.

둘째,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집단 구성이 의무적인 참여보다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담임이 학급을 대상으로 집단진로상담을 한다면 학급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몇 개의 모둠을 나눈 후 날짜를 정하고 반드시 집단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보다는 진로를 주제로 한 집단상담 실시를 학생들에게 공지한 후 희망자를 중심으로 집단을 운영한다면 학생들의 참여도와 몰입도가 훨씬 증진되어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셋째, 학습 문제를 집단진로상담의 주제로 포함시킬 수 있다. 진로지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진로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이지만, 학업이 더 중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진로교육의 시급한 목적은 진로교육을 통해 공부와 진로 선택과의 밀접한 관계를 깨달아 학습 동기 증진하기, 진로 목표 수립 후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학습방법 익히기 등에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그동안 필자가 진로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이 진로교육을 통해 학습동기가 유발되면 다음으로 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항이 “진로 목표를 세우고 나니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요?”라는 점이라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기관에서 청소년의 고민을 묻는 설문조사 실시 결과 부동의 1위는 성적, 즉 학습에 대한 고민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효과적인 학습 방법의 하위 영역으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집중력을 키우는 법, 핵심을 파악하는 법, 효과적으로 암기하는 법, 시험을 잘 치는 방법 등을 다룰 수 있다. 학습에 대한 내용을 집단진로상담의 주제로 선정할 때 이왕이면 시험을 앞두고 학습 문제가 학생들에게 발등의 불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실시한다면 더욱 몰입이 잘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자. ☺

[참고문헌]

- 커리어넷 교사연수 자료(커리어넷(www.career.go.kr) 사이트)
- 「내 꿈은 내가 만든다」,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교육과학사, 2013
- 「우리반 진로코칭」, 허은영, 우리교육, 2012



아이들의 ‘행복샘’이 되어주는 박희대 선생님

얼마 전 수능을 코앞에 둔 어느 날, 경기 평택고 3학년 1반 교실 앞에서 한 아이가 눈물을 훔쳐가며 원가를 읽고 있었다. 너무 힘들어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불들고 ‘저 좀 응원해주세요.’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울며 상담을 청해왔던 학생이었다. 지나가며 보니 담임선생님께 받은 편지로 보였다. 3학년 1반 교실 안에서는 수능시험을 앞두고 그들만의 장도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아이들은 진지하고 행복한 얼굴로 ‘행복샘’을 응시하고 있었다.

우리 학교에는 3학년을 지원하고 멋지게 학급을 운영하며 지친 고3 학생들의 마음에 행복을 불어넣는 말 그대로 ‘행복샘’이 있다. 행복샘의 학급경영은 3월 개학보다 앞선다. 2월에 아이들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들의 생활과 삶을 들여다 본다. 행복샘은 교사의 제 1임무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과 삶을 사랑으로 돌보며 가정과 소통하여 협력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라 믿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 행복샘 반에는 노트 한 권이 돌아다닌다. ‘나의 이야기’라는 이름이 붙은 노트에는 한 장에 한 명씩 자기소개를 적는다. 순서가 되면 아침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노트를 받아서 틈날 때 쓰고 저녁에 내는데, 그 사이 학급을 돌아다니는 노트에는 친구의 이야기 밑에 리플이 달리기도 한다. 나의 이야기에 친구들이,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멘트를 달아놓았을까 펼쳐보는 재미가 쓸쓸하다. 학급을 한 바퀴 돌고 난 노트는 손때가 묻어 꾀죄죄하더라도 ‘우리 반 보물’이라며 귀빈 대접을 받고, 학생들 사이에는 단합대회라도 한 듯 ‘우리’라는 연대감이 생겨난다. 그런 후에 시즌 투어처럼, ‘나의 꿈’이라는 이름이 붙은 노트가 또 한 바퀴 돈다. 꿈을 이야기하고 친구들의 꿈에 귀를 기울이며 나누는 마음과 생각들로 행복샘 반의 아이들은 눈빛부터 다르다.

한 달에 한 번 행복샘의 편지를 받아보는 어머님들의 마음

도 행복할 것만 같다. 아이들의 교실 이야기, 재미있었던 에피소드와 학교 소식을 담아 띄우는 편지에는 가끔 4컷 만화가 실리기도 하고 행복샘이 평소 읽은 책에서 메모해 두었던 좋은 글귀들도 실린다. 3월에 보내는 편지에는 선생님 시간표와 학교 일과표를 동봉해 수업이 없는 때에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다는 말도 빼놓지 않는다.

내가 행복샘을 알아보게 된 계기는 교실에 붙은 편지들 때문이었다. 그 반의 교과 담당으로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 중간에 짬날 때 아이들에게 써서 붙여놓은 편지를 읽는 것은 나에게도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나중에 그 울고 있던 아이에게 ‘선생님께서 편지에 뭐라고 쓰셨니?’라고 물었더니, ‘고생했다.’로 시작하는데 거기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노라고 대답했다. 누군가 나를 깊이 이해하여 진심으로 전하는 위로와 격려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힘을 발휘했다. 한 때 너무나도 흔하게 쓰였던 말, ‘멘토’가 떠올랐다. 마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큰 스승이 되는 길은 어찌면 거창하지 않을 수도 있다. 행복샘이 이야기하는 준비물은 하나다. ‘진심’.

글_ 박민주 경기 평택고 교사



기다림이 일상이 되는 곳

아바이 마을

2월은 기다림의 계절이다.

새 봄을 기다리고 새 학기를 기다린다.

겨우내 놋진해진 마음을 훌훌 털어내고

환한 미소로 나를 맞는 계절이다.

생활의 갈피마다 기다림이 묻어나는 곳,

그래서 2월엔 속초 아바이 마을이다.



본래는 사람이 살지 않던 곳이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1·4후퇴 때 남하하는 국군을 따라 내려왔던 피난민들이 사나흘 머물 요량으로 터를 잡기 시작한 곳이다. 지척에 고향을 두고도 돌아갈 수 없었던 이들은 기다림이 그저 생활이 되어버렸다.

사람이 줄을 당겨 움직이는 갯배

이곳은 피난민들이 머물면서 마을이 형성되어 속초읍 속초리 5구가 되었다가 1963년 1월 1일 시 승격과 동시에

청호동으로 바뀌었다. 청호라는 명칭은 청초호에서 온 것이다. 청호동 건너편 바닷길은 속초시 중앙동과 맞닿아 있다. 그 사이를 갯배가 이어준다.

청호동과 중앙동을 이어주는 도선 갯배는 일제 말기에 속초항이 개발되면서부터 그 세월을 함께 하고 있다. 예전에는 반부평(청호동)으로 불리다가 속초 부월리 2구(청호동)와 속진(영랑동과 중앙동의 일부)이 맞닿아 있던 것을 준설, 외항과 내항(청초호)이 통수되고 폭 92m의 수로가 형성되었다. 당시 속초읍에서 갯배 1척을 만들어 도선에



01



02

이용하게 되었는데 크기는 트럭 한 대와 우마차 한두 대를 같이 실을 만한 정도였다고 한다.

갯배의 운항 시간은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 청호동민들은 무료로 이용한다. 일반인들에게 배삯을 받기는 하나 어른은 200원, 아이는 100원에 불과하다. 워이~ 소리치면 가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에너지를 쓰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줄을 당겨 움직이는 ‘정직함’ 때문이기도 하다.

불과 몇 분이지만 갯배를 타는 재미는 쏠쏠하다. 금강대교가 놓인 이후 아바이 마을은 자동차로도 쉬이 오갈 수 있으나, 일부러 차를 버리고 갯배에 올라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갯배 위에 올라 바다 위를 동실 대며 떠가는 맛도 제법이기 때문이다.

황무지 같은 바닷가 모래톱에 피난민 모여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속초지역은 38선 이북지역으로 북한에 편입되었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국군의 북진과 함께 수복된 지역이다.

한국전쟁과 함께 북한 공산치하에서 자유를 억압받고 살던 북한지역 주민들은 자유를 찾아 남으로 피난을 내려오게 되지만, 전시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국군의 북진을 따라 북으로 가족과 함께 이동을 하게 된다.

전쟁이 끝나면 조금이라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열망을 가슴에 담고 있던 실향민들은 국군주둔지 인근에 살 집을 마련하게 되는데, 국군 제1군단이 주둔하면서 아무도 살지 않던 황무지와 같은 청초호 바닷가 모래톱에 하나 둘 정착하면서 피난민촌을 형성하게 되었다. 움막형태의 집들이 들어서면서 신포마을, 앵고치마을, 짜꼬치마을, 신창마을 등 자기 고장 마을 이름을 딴 집단촌을 형성

01. 아바이 마을의 골목길을 빠져나오면 탁 트인 동해바다가 선물처럼 펼쳐진다.

02. 사람이 줄을 당겨 움직이는 갯배. 뒤편으로 보이는 금강대교를 통해 쉽게 아바이 마을 오갈 수 있으나 일부러 차를 버리고 갯배에 올라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게 되었고 함경도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까닭으로 청호동 일대를 '아바이 마을'이라 부르게 되었다.

'아바이'는 함경도 말로 할아버지를 뜻한다. 현재는 2인 칭 남자를 지칭하는 말로 어의가 확대됐다. 아바이 마을의 주민은 60% 정도가 함경도 출신 내지는 2세들이다. 빠르면 보름, 길어봤자 석 달이면 고향에 갈 줄 알았던 실향민들은 반세기가 훨씬 지나고 있지만, 고향을 그리워하며 통일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아바이 마을은 이제 1박2일 천지

하지만 자본의 힘은 그리움보다 강한 걸까. 아바이 마을은 예능프로 「1박2일」과 드라마 「가을동화」가 잠식해 버렸다. 집집마다 강호동과 이승기 얼굴이 내걸리고 '진짜 출연한 집' '진짜진짜 출연한 집' '진짜진짜진짜 출연한 집'이라며 저마다 목소리를 높인다. 아바이순대와 오징어순대는 마을의 대표먹거리가 되었고 생선구이도 저마다 최고 맛집이라며 손님을 잡아끈다.

키 낮은 담장을 한가롭게 거닐며 골목 사이사이를 돌아 볼 틈이 없다. 집집마다 문 앞에 서서 객을 잡아끄는 목소리와 손짓에 짓눌려 그만 허둥지둥 골목을 빠져나오고 만다. 아바이 마을에 더 이상 아바이가 없다. 그렇더라도 마을 끝으로 드넓게 펼쳐진 동해바다는 선물처럼 다가온다.

03. 아바이 마을 골목마다 아바이순대, 오징어순대, 생선구이 등을 파는 음식점이 줄지어 서 있다.

04. 속초관광수산시장(속초중앙시장)에는 싱싱한 수산물은 물론,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가 즐비하다.

05. 속초는 어리를 가나 오징어, 코다리 등을 말리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다.

06. 07. 08. 미시령고개 근처에 대조영 드라마 촬영지가 있어 벌해시대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다.



05



06



07



08

탁 트인 바다에 서서 시원한 바람에 가슴을 헹군다.

속초만큼 불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지역도 드물다. 속초 시내 어디서 보나 그림 같은 설악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아바이 마을을 나와 속초관광수산시장(속초중앙시장)도 들러볼 만하다. 수산물과 농산물도 풍부할 뿐 아니라 닭강정, 씨앗호떡, 새우튀김, 수수빈대떡 등 먹거리도 다양하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대조영 드라마 촬영지를 가보는 것도 좋겠다. 밭해 역사관에서 당시의 생활상도 느끼고 건축문화도 엿볼 수 있다. 속초에서라면 어쩌면, 여행 일정을 느슨하게 다시 세워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④

정부 내 칸막이 해소

다 함께 힘을 합하면 문제없어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교육부 정부 3.0, 국민과의 약속

※ 국민의 입장에서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등이 협업하여 학생자치법정, 또래상담 등 부처 공동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2.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산업체의 모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마련하고, 학교교육, 직원훈련, 자격제도 등에 반영하겠습니다.

책 속의 블로그

명기
기자의
새색뉴스

프롬로그 | 블로그 N

경기도교육청 장애학생 스마트러닝 선도
장애학생 위한 정보화교육 열기 뜨거워

겨울방학을 맞아 특수교사들이 경기도 안성에 모였다. 지난 2014년 1월 7~8일 양일간 경기도 안성 교직원 수련원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길학교가 주관한 '2013 스마트러닝 저작 도구 사용법 및 사례발표 특수학교(급) 교사 워크숍'이 있었던 것.

경기도교육청은 산하 단체로서 장애학생들의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정보자료실(키세넷, www.kysenet.org)'과 '경기도 장애학생 스마트러닝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두 단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특수교육정보자료실(키세넷)은 장애학생들의 교수·학습에 필요한 수업자료, 지도안, 특수교육법에 관한 사항 등 각종 자료를 관리하는 홈페이지이며, 장애학생 스마트러닝 지원단은 장애학생들의 정보화교육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며 보다 많은 특수교사들에게 장애학생 스마트러닝에 관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단체이다. 특수교육정보자료실은 총 11명의 특수교사가, 장애학생 스마트러닝 지원단은 21명의 특수교사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 더 나은 장애학생 정보화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워크숍은 관련 위원들을 비롯하여 장애학생들의 정보화교육에 관심이 있는 특수교육전문가들까지 약 4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지난 1년 동안 정보자료실과 스마트러닝 지원단의 운영 보고로 시작한 워크숍에서는 '저작도구 이지북 사용방법', '장애학생 스마트러닝 교육방법 및 앱 활용방법',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교육 확장', '디지털교과서 저작도구 및 사례발표' 등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현장 교사부터 교육부



01. 스마트러닝의 저작 도구 사용법 및 사례발표를 위한 워크숍에 참여한 특수학교(급) 교사들

국립특수교육원 연구사와 실제 어플리케이션 제작 업체 직원까지 다양한 강사들이 실제적이고 흥미로운 시간을 선물하였다.

워크숍을 준비한 경기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박노섭 장학사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사들은 끊임없이 '정보화교육'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보화시대의 흐름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우리 장애학생들도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두쳐지지 않고 행복한 내일을 살아가게 할지는 우리 교사의 몫이다."라고 당부하였다.

추운 겨울날 겨울방학의 한 가운데 실시한 워크숍이었지만, 그 어느 곳보다,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였다. 그 이유는 '장애학생 정보화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장애학생 정보화 교육을 선도하는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정보자료실과 장애학생 스마트러닝 지원단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연구하여 전국의 장애학생들이 행복한 내일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글·사진_ 김원형 명예기자(한길학교 교사)

국립남도국악원 국악교육 직무연수 인기

국악 삼매경에 빠진 선생님들 ‘얼쑤~’

두터운 점퍼와 목도리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어도, 힘박웃음이 떠나지 않는 겨울방학, ‘어떻게 하면 신나고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비단 학생만이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학기 준비뿐 아니라 연수를 통해 자기 계발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선생님들을 만나 보았다.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전국 유·초·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국악교육 직무연수’가 1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 5일간 국립남도국악원(전남 진도군)에서 진행되었다. 평소 국악 지도에 관심이 많고 실기능력을 향상시켜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전국 유·초·중등학교 교원 40명이 연수에 참여했다.

윤이근 국립남도국악원장은 “이번 직무연수는 장구, 소금, 단소, 민요 위주의 실기 과정 연수와 함께 다양한 교수법을 소개하고 교육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강강술래와 한국 무용에 대한 설명 등 교사들이 국악에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강술래~” 김종심(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 강강술래 보유자) 강사가 ‘메기는 소리’를 부르자 연수에 참여한 선생님들은 ‘강강술래~’하며 ‘받는 소리’를 한다. 장단이 늦은 가락으로 시작한 춤은 이내 뛰는 것처럼 빨라졌다. 하늘로 휘젓는 손짓도, 땅에 내딛는 발짓도 서툴기는 하지만 선생님들의 표정은 무척 밝다. 수업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연수에 참여한 박대한 교사(가거도초)는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의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악기 중의 하나인 장구의 유래 및 구조, 연주법 등을 쉽게 익혀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해 지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수 마지막 날에는 그동안 배우고 익힌 연주발표회도 열어 나름대로 선생님들의 숨씨를 자랑했다. 특히, 장구

맞춤형 국악교육직무연수

일시 2014. 1. 6(월) ~ 1. 10(금)

국립남도국악원

01. 국립남도국악원이 진행하는 맞춤형 국악 연수는 연간 6천여 명이 이용한다.

채를 잡은 두 손이 좌우·상하 자유자재로 부드럽게 움직이며, “얼쑤~, 절쑤~, 좋다”라는 추임새까지 넣는 풍물 장구를 연주하는 선생님들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2004년 7월 개원한 국립남도국악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600석 규모의 국악전용극장, 1,200석 야외공연장(달빛마당), 교육 연구동, 숙박동을 갖추고 있다. 연간 6천여 명이 이용하는 국악 연수 프로그램은 초·중·고, 교사, 학부모, 가족 등 대상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2박 3일간 합숙으로 진행되는 단체 연수는 매달 초 일찌감치 마감될 정도로 인기다.

한국 전통예술의 아름다움과 멎에 빠진 선생님들은 우리 것을 가감 없이 바르게 학생들에게 알리는 메신저들이다. 방학기간에 의미 있는 재충전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많다. 2014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설 명절이 지나가고, 새로운 각오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싶은 의욕이 충만할 때,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다음 학기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선생님들의 방학은 아무진 계획과 실천이 중요할 것이다.

글·사진_ 정수진 명예기자(강릉정보공업고등학교 교사)


사람과 여행

근대문화유산의 성지, 전북 군산

전북 군산은 우리나라에서 근대문화유산과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가 남아 있는 곳이다. 일제강점기 옥구, 김제 등 곡창지대에서 많은 쌀을 생산하면 군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쌀을 실어내 가는 출입구 노릇을 했던 곳이다. 문화재인 들 온전할 수 없었다.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3 발산초등학교 후원에는 일본인 농장주가 정원을 꾸미기 위해 수탈한 고려 초기의 석등과 석탑이 궁금하여 찾아가는 발걸음은 기볍지 않았다. 교정으로 들어서니 휴일이라 인기적은 없고 인부들이 일제강점기 구 일본인 농장 창고였던 건물에서 기와를 걷어내며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다. 발산초등학교 후원에는 4점의 지정문화재와 석조문화재들이 있었다.

발산초등학교에서 발견한 문화유산

발산초등학교에 있는 문화재는 전북 완주 지역에 있던 것을 일제강점기 때 정원을 치장한다고 일본인들이 옮겨왔다. 보물 제234호 발산리 석등은 불을 켜두는 화사석을 중심으로, 밑쳐주는 3단의 받침들을 두고, 위로는 지붕돌과 머리장식을 얹은 모습이다. 받침의 가운데 기둥은 사각의 네 모서리를 둥글게 깎은 모습으로, 표면에 구름 속을 요동치는 용의 모습을 새겼는데, 이러한 형태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모습이다.

발산리 오층석탑은 보물 제276호로 완주 봉림사터에 있던 것을 일제 때 지금의 위치로 옮겨 왔다. 문화재의 명칭을 봉림사 오층석탑이라고 해야 옳은데 쉽지 않은 모양이다. 탑은 2단의 기단 위에 5층의 탑신을 올린 형태로 추정되나 현재는 탑신의 한 층이 없어지고 4층까지만 남아있다. 지붕돌은 경사가 급하고 추녀 끝이 약간 들려 곡선을 이루고 있으며, 밑에는 3단의 받침을 두어 고려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탑은 전체적으로 균형미가 있으며, 고려 탑의 간결한 아름다움이 잘 나타나 있다.

발산리 육각 부도는 전북문화재자료 제185호이다. 1903년 군산에 농장을 개설한 일본인 시마마쓰니 야소야라는 사람이 위치를 알 수 없는 절터에서 가져온 것이라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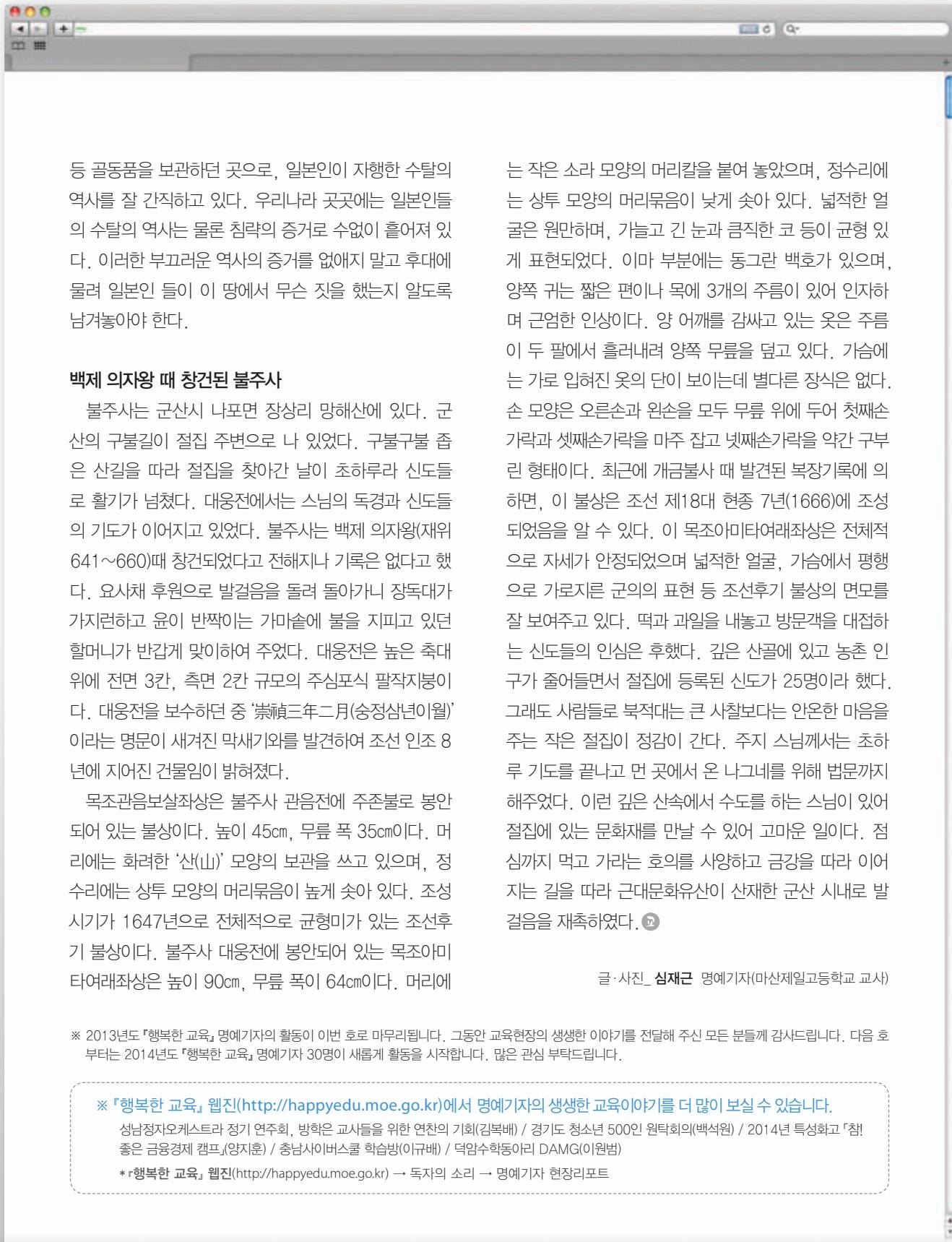
01. 발산리 오층석탑

02. 발산리 석등

03. 불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며, 현재 발산리 오층석탑 및 석등과 함께 발산초등학교에 있다. 전체 높이는 175cm 내외로 추정된다. 부도의 전체적인 구도와 조각수법이 뛰어나고 6각이라는 형태가 특이하다. 우리나라 불교 조형물에서 6각이 등장하는 것이 고려시대에 들어 중국 송나라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평면 형의 특이함과 조각수법이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교내 뒤편에는 등록문화재 제182호 구일본인 농장창고가 있다. 이 건물은 군산 지역의 일본인 대지주가 귀중품을 보관하기 위해 철근 콘크리트조로 견고하게 지었다. 입구에 미국에서 들여온 철제 금고문이 달려 있고 창문에는 이중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다. 한국전쟁 때에는 군산에 주둔한 인민군들이 옥구 지역 우익인사들을 감금하는 곳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현금과 서류뿐만 아니라 일본인 대지주가 불법 수집한 수많은 한국의 서화와 도자기



등 골동품을 보관하던 곳으로, 일본인이 자행한 수탈의 역사를 잘 간직하고 있다. 우리나라 곳곳에는 일본인들의 수탈의 역사는 물론 침략의 증거로 수없이 흩어져 있다. 이러한 부끄러운 역사의 증거를 없애지 말고 후대에 물려 일본인들이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도록 남겨놓아야 한다.

백제 의자왕 때 창건된 불주사

불주사는 군산시 나포면 장상리 망해산에 있다. 군산의 구불길이 절집 주변으로 나 있었다. 구불구불 좁은 산길을 따라 절집을 찾아간 날이 초하루라 신도들로 활기가 넘쳤다. 대웅전에서는 스님의 독경과 신도들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었다. 불주사는 백제 의자왕(재위 641~660)때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나 기록은 없다고 했다. 요사채 후원으로 발걸음을 돌려 돌아가니 장독대가 가지런하고 윤이 반짝이는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있던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다. 대웅전은 높은 축대 위에 전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주심포식 팔작지붕이다. 대웅전을 보수하던 중 '崇禎三年二月(승정삼년이월)'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막새기와를 발견하여 조선 인조 8년에 지어진 건물임이 밝혀졌다.

목조관음보살좌상은 불주사 관음전에 주존불로 봉안되어 있는 불상이다. 높이 45cm, 무릎 폭 35cm이다. 머리에는 화려한 '산(山)' 모양의 보관을 쓰고 있으며, 정수리에는 상투 모양의 머리묶음이 높게 솟아 있다. 조성 시기가 1647년으로 전체적으로 균형미가 있는 조선후기 불상이다. 불주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높이 90cm, 무릎 폭이 64cm이다. 머리에

는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을 붙여 놓았으며, 정수리에는 상투 모양의 머리묶음이 낮게 솟아 있다. 넓적한 얼굴은 원만하며, 가늘고 긴 눈과 큼직한 코 등이 균형 있게 표현되었다. 이마 부분에는 동그란 백호가 있으며, 양쪽 귀는 짧은 편이나 목에 3개의 주름이 있어 인자하며 근엄한 인상이다. 양 어깨를 감싸고 있는 옷은 주름이 두 팔에서 흘러내려 양쪽 무릎을 덮고 있다. 가슴에는 가로 입혀진 옷의 단이 보이는데 별다른 장식은 없다. 손 모양은 오른손과 왼손을 모두 무릎 위에 두어 첫째손가락과 셋째손가락을 마주 잡고 넷째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형태이다. 최근에 개금불사 때 발견된 복장기록에 의하면, 이 불상은 조선 제18대 현종 7년(1666)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전체적으로 자세가 안정되었으며 넓적한 얼굴, 가슴에서 평행으로 가로지른 군의의 표현 등 조선후기 불상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떡과 과일을 내놓고 방문객을 대접하는 신도들의 인심은 후했다. 깊은 산골에 있고 농촌 인구가 줄어들면서 절집에 등록된 신도가 25명이라 했다. 그래도 사람들로 북적대는 큰 사찰보다는 안온한 마음을 주는 작은 절집이 정감이 간다. 주지 스님께서는 초하루 기도를 끝나고 먼 곳에서 온 나그네를 위해 법문까지 해주었다. 이런 깊은 산속에서 수도를 하는 스님이 있어 절집에 있는 문화재를 만날 수 있어 고마운 일이다. 점심까지 먹고 가라는 호의를 사양하고 금강을 따라 이어지는 길을 따라 근대문화유산이 산재한 군산 시내로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

글·사진_ 심재근 명예기자(마산제일고등학교 교사)

* 2013년도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의 활동이 이번 호로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교육현장의生生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호부터는 2014년도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 30명이 새롭게 활동을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서 명예기자의 생생한 교육이야기를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성남정자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방학은 교사들을 위한 연찬의 기회(김복배) / 경기도 청소년 500인 원탁회의(백석원) / 2014년 특성화고「참 좋은 금융경제 캠프(양지훈) / 충남사이버스쿨 학습방(이규배) / 덕암수학동아리 DAMG(이원범)

*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 → 독자의 소리 → 명예기자 현장리포트

NEWS BRIEFING

2014-1학기 학자금대출 시작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2.9%로, 1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09년 1학기에 연 7.3%에서 '13년 1학기 연 2.9%까지 지속적으로 인하하였고, '14년도 채권조달 금리가 3%대로 상승이 예상되지만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금리를 2.9%로 동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8월 29일에 발표한 '14학년도 대출제한 대학(14개교)의 1학년 신입생에 대해 일반상환학자금(소득 7분위 이하) 일부 대출이 제한되며, 과거('11학년도~'13학년도) 대출제한 대학 중 '14학년도 대출제한 대학으로 재선정된 대학의 경우에는 재학생에게도 일부 학자금 대출제한이 적용된다.

학자금대출 신청은 본인의 개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14.1.8~3.31)하면 되고, 생활비대출 신청은 5월 30일까지 가능하다. 교육부는 각 대학(원)은, 가급적 등록기간을 등록금 대출기간(1학기 1.8~3.31)과 맞추어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고,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들은,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연체 등의 공지내용이 잘 전달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생설계' 교육기부 주간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인생설계' 교육기부 주간을 운영하였다. '2014년 교육기부 주간'은 사회 각 분야의 기관, 단체, 전문가들이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실생활의 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테마별

교육기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2014년 교육기부 주간의 첫 주제인 '인생설계' 교육기부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습관을 조기에 길러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좋은 습관 만들기,' '라이프 디자인: 직업과 인생설계' 등으로 운영되었다.

총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인생설계' 교육기부에서는 건강관리, 금융습관, 인생 및 진로설계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었으며, 약 3,5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라이프 디자인 캠페인 포럼'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자아탐색, 습관 바꾸기, 꿈 찾기 등 일련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코칭 받았다.

이번 교육기부 주간에 참여한 한국건강관리협회, 금융감독원, 프리메드, 드림스타트, 한국청소년리더십센터, 한국진로상담협회 등 총 15개 기관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강의 및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였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올바른 보건 습관 형성을 위해 '건강습관 만들기 ABC' 프로그램 운영을, 프리메드, 드림스타트는 올바른 식습관, 긍정습관 만들기를 주제로 꿈을 키우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경제인식 함양 및 올바른 소비 습관 만들기를 주제로 '똑똑한 돈 관리와 신용관리' 프로그램을, 한국청소년리더십센터는 올바른 시간 관리를 위한 일정관리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앞으로도 '교육기부 주간'의 운영을 통하여 많은 기업·기관들이 학생들의 다양한 꿈과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창의체험 교육 기회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는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대학 체질을 개선하고 현장적합성 높은 대학교육으

로 대학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2014년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이하, LINC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LINC사업은 '12년부터 도입되어 오는 2월 28일까지 2년간의 1단계 사업 기간('12~'13년)이 종료되고, 이어서 3년간의 2단계 ('14~'16년) 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산학협력단 기능 강화 방안'('13.10.)과 '산학협력 활성화 10대 중점 추진과제'('13.12.) 등 주요 정책 내용을 2단계 사업에 반영하여 중점 추진한다.

단계평가는 LINC 사업 단계별 중점 목표(1단계 : 기반 조성 및 내실화, 2단계 : 성과 창출 및 확산)를 고려하여, 1단계('12~'13년) 사업성과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와 2단계('14~'16년) 사업 계획에 대한 정성평가, 수요자(학생, 산업체)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신규 선정평가는 2단계 사업에 신규로 신청한 사업단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대학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산학협력 실적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와 2단계 사업계획에 대한 정성평가, 산업체 만족도 조사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4년제 대학은 선정평가 결과가 우수한 상위 12개 사업단(5대 권역별·사업 유형별 2교씩)은 우선 선정되며, 차상위 사업단은 '예비사업단'으로 판정되어 단계평가 결과 '보통사업단'과의 비교평가를 통해 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문대학은 선정평가 결과가 우수한 상위 4개 사업단(산학협력 선도형 1교, 현장실습 집중형 3교(공학계열 2, 비공학계열 1)은 우선 선정되며, 차상위 사업단은 '예비사업단'으로 판정되어 단계평가 결과 '보통사업단'과의 비교평가를 통해 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규로 선정된 대학은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 등 산학 협력 기반의 내실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 산업과 연계한 기업맞춤형 인력양성과

창업교육 내실화, 혁신기술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1월 중 사업 공고를 마치고 3월 초까지 대학별 신청서를 접수받아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와 산업체 수요자 설문조사를 거쳐 5월 중에 2단계 LINC 사업 참여 대학(사업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의 LINC사업 추진을 통해서 대학들이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대학 체질을 개선하고 지역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추진하는 등 다방면으로 대학과 지역경제 발

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추진되는 2단계 사업이 산업체 수요 맞춤형 교육과 창업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 기업의 매출 상승과 고용 창출까지 연계되는 산학협력 선도 모델을 창출하는 등 대학과 지역 산업이 공생 발전과 창조경제 구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1회 수학교사 한마당 개최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수학교육의 변화와 다양한 시도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교사의 수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제1회 수학

교사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교사들의 수학수업 무한 상상'이라는 주제로 수학이 창조경제의 기반임을 강조하고 2014 세계 수학자대회(SEOUL ICM 2014)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리이다.

이번 행사는 1월 6일부터 10일까지 4박 5일간, 대전 목원대학교에서 열렸으며, 전국 868명의 초등학교 교사 및 중·고등학교 수학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강연과 토론을 펼쳤다.

기조강연에서는 박형주 세계수학자대회 (ICM 2014) 조직위원장, 김민형 영국 옥스

교육부 – 미래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미리 창의인재 양성에 적극 협력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1월 20일 교육부 중회의실에서 창조 경제를 이끌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 논의를 위해 차관 간 정책 협의회(교육부 나승일 차관, 미래부 윤종록 차관)를 개최하였다.

동 정책협의회는 2013년 5월 체결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양 부처는 지난 8월에도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 방안」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교육부와 미래부가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교육 및 정보영재 발굴·육성〉

소프트웨어 과목의 정규교과 확대는 국가·사회적 요구, 학생의 발달단계, 현장 수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적합성을 검토한 뒤 2015년 교육과정 개정 시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AP 과정(Advanced Placement : 대학과목 선이수제)을 '14년 공동으로 개발, 과학교·과학영재학교에 2015년부터 시범 적용해 정보 분야의 영재를 발굴·육성하고,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의 원활한 지정과 지원을 위한 방안도 양 부처가 공동으로 모색한다. 또한 대학 과정에서도,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자신의 역량을 널리 펼칠 수 있도록 IT 역량지수의 활용에 협력해 나간다.

〈꿈과 끼를 가진 창의인재 육성〉

과학관, 연구소 등 미래부가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체험 인프리를 중학교 자유학기제, 교육기부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도록 지원하는 한편, 교육 부문 비타민프로젝트의 일환인 IT 기반의 '스마트과학실험실', 학생 누구나 아이디어를 펼

칠 수 있는 학교 내 '무한상상실'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실험과 탐구 중심의 과학교육을 실시한다.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

양 부처의 기초연구활동 진흥사업 간의 중복을 방지하고 연구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별 사업설명회 공동 개최, 사업 간 시기 및 내용 조정 등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이외에도 각 국·공립대학에 기초연구사업 '우수 평가자'를 안내하여 교수 업적평가가 시 우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공계열을 중심으로 학문 분야 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수 업적평가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기타 협력 사항〉

이공계 인력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연구개발, 연구개발 지원, 과학기술 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전국 초·중등 학교의 방과후학교 수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하고, 「2015 세계교육회의」, 「2015 세계화학대회」 등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 시에도 교육부와 미래부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데에 두 부처가 인식을 함께 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과학관, 연구소 등 미래부의 다양한 체험 인프라가 진로체험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에 적극 활용되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데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종록 미래부 차관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며, 특히 지식창조 사회의 주요 수단인 소프트웨어를 모든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배울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S BRIEFING

퍼드대 수학과 교수를 비롯하여 네덜란드, 스웨덴, 일본 등 저명한 국내외 수학교육자와 교사가 함께 창조경제를 위한 수학교육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분과강연에서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수학교육 연구 자료, 시·도교육청의 교사연구회 개발자자료 등 우수 연구 성과물을 발표하고 사례를 공유하며, 특히, 수학 수업 개선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의 수학 수업 명인들이 교사들에게 수학 수업 방법에 대해 강의하였다. 소통시간에는 주제별, 지역별, 학교급별 등 자율적 토론 모임을 통해 참가 교사들이 수학교육과 수업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인 수학의 중요성을 확산시킴으로써 수학교육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Wee 센터 전문상담(교)사 연수 실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Wee센터에 종사하는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슈퍼비전을 실시한다.

슈퍼비전은 상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담(교)사들이 자신이 실제 상담한 사례를 정리해 전문가의 심층적인 자문을 받는 형식으로 상담(교)사들의 상담능력 향상을 돋는 서비스이다. 최근 학교폭력 등 위기학생이나 학부모 상담이 증가하면서 Wee센터 상담원들의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신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면대면 슈퍼비전을 받기 어려운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상담사례 분석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사례 발표자가 자신의 상담사례를 발표하고, 상담전문가가 효과적인 상담방법에 대해 지도·조언하는 방식으로 진행, Wee 센터 내 다른 종사자

들 역시 참관자로서 상담전문가의 상담사례 분석 및 지도사항을 듣거나, 질문을 하는 등 온라인 슈퍼비전 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13년 교육부와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간 상담지원 업무협약에 기반한 것으로 Wee프로젝트연구특임센터와 두 학회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학회 소속 상담·심리 전공교수, 박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금번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슈퍼비전은 1월 15일 고흥 Wee 센터를 시작으로, 2014년 2월 말까지 농산어촌 등 지역적 제약으로 슈퍼비전 실시가 어려운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향후 전국 모든 Wee 센터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온라인 슈퍼비전'을 희망하는 Wee 센터에서는 Wee업무지원시스템(<https://manage.wee.go.kr>) 내에 마련된 [상담지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 슈퍼비전'은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모든 Wee 센터상담원들의 위기사례에 대한 대처능력 증진과 상담역량 제고 기회 제공 등 지속적인 전문성 제고의 토대 마련과 동시에, 상담 수혜자인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사례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학, 창조를 더하고 가치를 나누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 세계수학자대회 국내유치를 계기로 수학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수학이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수학연구 등 수학의 차별화를 확대하고, '2014 세계수학자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 수학계는 '2012 국제수학교육대회'에 이어 '2014 세계수학자대회', '2014 Bridges Conference'를 국내에 유치·개최함으로

써 수학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4년마다 개최되어 수학계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수학자대회는 전 세계 수학자 5,000여 명이 참가하는 기초과학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학술대회로서, 개최국 국가원수가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FIELDS Medal)'을 수여하는 전통이 있는 유서 깊은 대회이다.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아시아에서 4번째로 세계수학자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수학계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수학과 창조경제 포럼'에서는 '수학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주제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 응용수학연구소 M.J.Estebaran 소장의 기조강연을 비롯하여,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수학의 역할'과 '수학적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주제로 한 주제강연과 패널토론도 진행되었다.

'2014 한국 수학의 해 선포식'에서는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수학연구와 창의적 수학교육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세계수학자대회 최초의 한국 기조강연자 황준묵 교수(고등과학원)와 국제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자 임동규 학생(U.C.버클리대)이 낭독하였다.

교육부와 미래부는 이번 수학의 해 선포를 시작으로 수학과 창조경제 슬로건 "수학, 창조를 더하고 가치를 나누다"를 활용한 다양한 수학문화 행사와 함께 콘텐츠 제작·보급 및 강연회 등을 병행함으로써 수학의 저변 확대와 창의적 수학교육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동 개정은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 관리 및 입학업무 처리 등과 관련하

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발표된 '제1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 대책'의 일환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학교의 내국인학생 입학비율(30%)의 기준을 학년별 학생 정원으로 명확하게 하였다. 내국인 입학비율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내국인 학생 정원 관리를 보다 체계화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교육감이 외국인학교의 학생 선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학업무 처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감은 각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맞춰 입학업무 처리 절차와 입학자격 검증 서류 등을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동 개정으로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정원 관리 및 입학업무 처리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학교의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인학교가 본래 설립 취지를 살리면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 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 발족

교육부는 1월 8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국가 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前 국무총리)을 위원장으로 총 17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국가 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초·중·고 교육과정 정책 전반에 관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

하게 되며, 특히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서남수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잘 배워야 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교육이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부터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자문위원들에게 이번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기존의 시험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개혁의 설계도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위원회는 매달 1회 정례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교육과정 개정 방향 등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미래의 대학 학과를 스마트폰으로 본다!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적성과 흥미에 맞는 학과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정보서 「2014 미래의 직업세계(학과편)」를 편찬하여 보급하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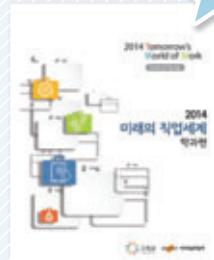
동 진로정보서는 기존에 종이책으로 작성·배포되었으나, 올해는 종이책자뿐만 아니라 전자책(e-book) 서비스를 동시에 추진하여 인터넷 및 휴대용 정보기기를 통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 일반인까지 언제 어디서나 진로(학과)정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전자책 제공 뷰어 앱을 자신의 태블릿PC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은 후 회원가입을 하고 자신의 계정을 생성하고 찾기 메뉴에서 [미래의 직업세계]를 검색 후 다운로드하면 된다. 또한, 이미 발간된(2011년) 「미래의 직업세계(직업편)」도 전자책(e-book)으로 재발간하여 무료로 서비스할 예정(14년 3월 이전)이며, 2014년에 「미래의 직업세계(학과편)」 개정판을 발간할 예정이다.

「2014 미래의 직업세계(학과편)」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전공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학 학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향후 전망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제어 검색, 단어 검색이 가능하여 관심학과나 분야를 쉽게 찾아서 참고할 수 있다. 그 구성은 「미래의 전공 트렌드」, 「학과별 소개와 전망」, 「학과 인터뷰」로 크게 구

분할 수 있다.

「미래의 전공 트렌드」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유용하게 쓸일 수 있는 첨단 전공 등에 대해서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학과별 소개와 전망」에서는 대학의 총 150개 학과를 소개하면서 학과 개요·특성, 흥미와 적성, 졸업 후 진출분야 및 학과별 지원자와 입학생의 추이, 졸업생 월평균 수입 등의 각종 통계 자료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학과 인터뷰」에서는 150개 학과에 재직하는 교수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담아 생생한 학과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종이책자의 경우 지면상 본문에 실지 못한 인터뷰 전체 내용은 QR코드를 이용하여 커리어넷(<http://www.career.go.kr>)에서 볼 수 있게 하였다.

「미래의 직업세계」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0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직업세계 속에서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학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및 일반인들에게까지 학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향후 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진로설계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②



“자유학기제, 긍정적인 부분만 언급
학교현장의 어려움도 함께 소통해주길”

오예정(경기 백마고등학교 교사)



1. 「행복한 교육」을 읽게 되신 동기는 무엇인가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학기 중에는 수업 준비와 업무로 여유없이 지냅니다. 정신없이 지내며 새로운 것을 머릿속에 넣지 않은 채 끝나니 보면, 어느 새 바닥을 드러내는 느낌이 들죠. 방학이 되면 방전된 체력과 정신적인 고갈을 연수와 독서로 채워야 다음 학기에 부끄럽지 않게 교단에 설 수 있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지인의 소개로 「행복한 교육」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 지난 1월호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보신 코너는 무엇인가요?

교육현장에서 수업과 생활지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지 현장의 선생님들의 모습이 담긴 코너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와 다른 교과이지만 스토리텔링을 수학교과에 적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 수업을 다시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년을 1년 앞둔 교사의 ‘한번 담임은 평생 담임’이라는 기사를 읽으며 꾸준히 나를 갈고 닦아 열정이 식어가는 교사는 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3. 아쉬움이 남거나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은?

이번 기획 기사인 자유학기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부족한 독자들에게 개념 이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과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은 소개가 미흡해 보입니다.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단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긍정적인 측면만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교사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만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자칫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느낌도 듭니다.

4. 앞으로 담았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사회는 우리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직업과 교과의 전문성과 사명감과 소명의식, 진로와 생활지도까지 이 모든 것을 갖춘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만 좋은 모습보다 안 좋은 면이 많이 부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교사들의 어려움과 고민들을 담아 주시고 교사들이 마음을 다독여주고 힐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이 되었으면 합니다.

1월호는 새해 첫 호답게 교육부의 한 해 다짐과 17개 시·도교육청의 2014년 한 해 사업방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면이 짧아서 그랬겠지만, 교육청별로 ‘행복’을 추구하는 교육정책이 대동소이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교육청의 우수한 사업을 자세하게 담아내는 지면이 있었으면 합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을 한 자리에 놓고 보니 비슷한 사업들도 많은데, 비슷한 사업을 한 주제로 모아서 사업내용과 과정 등을 소개해도 유익한 정보가 될 듯합니다.

김지영 | 행복한 교육 모니터단

인천한누리학교 기사를 관심있게 읽었습니다. 15개국의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보면서 쉽지는 않겠지만, 사명감을 갖고 교육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요즘 농촌학교에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을 심심찮게 목격합니다. 충청도의 한 학교는 전교생의 30% 이상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때에 다문화교육은 교육의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무척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좀더 다문화교육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연호 | 행복한 교육 모니터단

진로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획에서도 진로교육에 다루었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례들이 더 많이 소개되었으면 합니다.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들의 사례를 소개했지만, 실제 학교의 규모나 지역적인 여건 등에 따라서 진로교육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의 여건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지역인프라를 구축하는 노하우도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삶과 교육에 소개된 최숙현 선생님의 선행을 보면서 가슴 훈훈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고마운 사람일텐데, 많은 선생님들이 본받았으면 합니다.

이소영 | 행복한 교육 모니터단

五자만담

디지털시대, 나의 학습노하우는 ○○○○○이다.

우린 디지털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지털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다섯글자로 표현해주세요.

보내실 때는 이름, 연락처, 주소(우편번호)를 꼭 기입해 매달 20일까지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eduzine21@gmail.com (gmail은 수신확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지난호 五자만담 당첨자 1월호 주제 : 졸업은 우리들에게 ○○○○○이다.

참수고했어(김아람) / 행사의완성(계동구) / 삶의한단락(이지환) / 한발또전진(장서문) / 희망과도전(송용한)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

낯선 길, 어두운 길이라고 두려워 마세요.
언제나 당신의 손안에서 함께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안드로이드



iOS

www.gmap.go.kr

지금 바로 다운받아
사용해 보세요!



안전행정부

국가장학금 혜택은 늘고 등록금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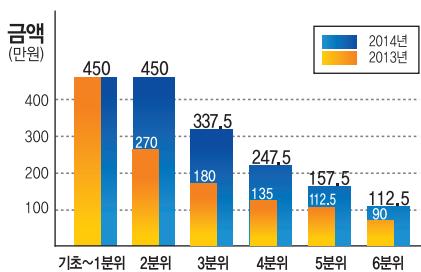
2014년 3조 7천억원으로 예산이 확대된 국가(재원) 장학금
2015년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2014년 1학기 국가장학금 꼭 신청하세요! www.kosaf.go.kr

저소득층 지원 대폭 확대

기초 ~ 6분위까지 집중 지원



지방대 장학금 지원

2014년 지방인재장학금 1000억원 신설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신설

'14년부터 '17년까지 다자녀 지원 연차적으로 확대(예상규모)

